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Ⅰ 총괄	윤성훈 (선임연구위원)
Ⅱ 경제금융 동향	경제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세계경제 채원영 (연구원) 국내경제 채원영 (연구원) 금융경제 이정환 (선임연구위원)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생명보험 김세중 (선임연구위원) 손해보험 최 원 (선임연구위원)

■ 목차

I. 테마진단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 1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과 시사점 / 17

I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33

2. 국내경제 / 51

3. 금융경제 / 62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 68

2. 생명보험 / 71

3. 손해보험 / 89

부록 I. 통계표 / 115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22

I. 테마진단

◆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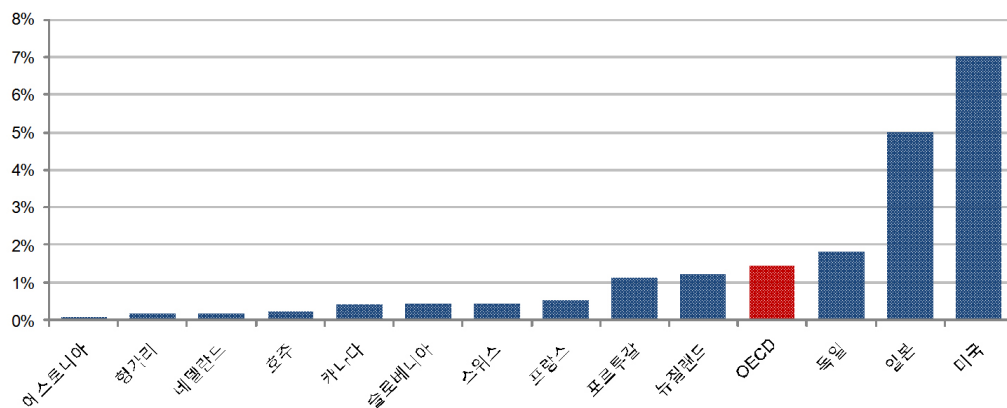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인구고령화로 정부와 개인의 장기요양(Long-Term Care, 이후 LTC)비용이 급속히 증가해 민영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이후 LTCI)의 활성화를 통한 비용 분담이 요구되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민영 LTCI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음.

○ 민영 LTCI 지출이 전체 LTC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7%)과 일본(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전체 LTC 지출의 2% 미만임.

〈그림 1〉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전체 장기요양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2011), Figure 8.1을 재인용함.

■ 민영 LTCI 시장이 상대적으로 가장 발달한 두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인데, 보험 침투도 (penetration) 측면에서 프랑스 시장이 미국에 비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10% 미만이 보험에 가입한 반면, 프랑스는 60세 이상 25%가 가입해 있음.
-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 민영 장기요양보험 상품이 프랑스는 정액보상형(fixed indemnity model)인 반면 미국은 실손보상형(reimbursement model)임.
 - 미국에서는 공·사 장기요양보험의 주 대상층이 다른 반면 프랑스는 민영 장기요양보험이 공적 보험을 보완하는 관계에 있음.

■ 프랑스 민영 LTCI 시장의 상대적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민영 간병보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임.

- 부모와 자식 간에 유산상속과 돌봄 제공을 둘러싼 '가족 내 도덕적해이(intra-family moral hazard) 이론'에 근거해서 정액형 상품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정액형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독 프랑스 시장이 성공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민영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보험 수요측면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프랑스의 상대적인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함.

- 2장에서는 먼저 프랑스와 미국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체제와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함.
- 3장에서는 이제까지 보험 공급 측면의 문제¹⁾를 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민영 LTCI에 대한 낮은 수요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그에 근거해서 정액형과 실손형 상품의 차이를 살펴 봄.
- 4장에서는 프랑스의 상대적인 성공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1) 사업비율(load factor)과 역선택문제. 사업비율이란 수입보험료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비율을 의미함. 사업비율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보험계약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음. Brown and Finkelstein(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LTCI의 사업비율은 0.18로 일반 의료보험의 0.06~0.1에 비해 높은 편임.

2. 프랑스와 미국의 장기요양보험 비교

가. 공적 노인장기요양 체계 비교

- 장기요양의 위험은 80세 이상이 되면 급속히 증가하는데 프랑스와 미국을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미국에 비해 노인 인구 비중과 장기요양비용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1〉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비용 지출 비교

구분	프랑스	미국	OECD 평균	한국
65세 이상 인구비중 ¹⁾ (80세 이상)	16.9% (5.5%)	15.8% (3.7%)	15% (4%)	10.7% (1.8%)
총 노인장기요양 지출 ²⁾ (% of GDP)	1.8%	1% ³⁾	1.5%	0.3%

주: 1) 2011년, 2) 2008년, 3) 2007년.
자료: OECD(2011), 국가별 자료를 재구성함.

- 프랑스의 공적 노인요양보험 제도인 노인간병수당(APA)²⁾의 특징은 현금 급여를 제공하며,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의 폭이 매우 큼.³⁾
 - APA는 6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6.7%, 85세 이상 인구의 20%가 APA의 혜택을 받았음.
 - APA 수급자는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 수발자를 고용할 수 있고, 재가급여는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뺀 금액이 지급됨.⁴⁾
 -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넓히는 대신 허가된 간병서비스 제공자들만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감독함.

2) 노인간병수당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활동(ADLs)에 어려움이 있는 이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 이전 제도인 장기요양특별급여(PSD)에 있던 소득제한 규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월 13,000프랑 이상인 경우 적용 제한)을 없애고 적용받는 등급 기준을 완화시켜 혜택의 범위를 넓혔음. 관리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보건사회연구원 2012).

3) 보건사회연구원(2012).

4) APA는 주로 재가급여를 지급하고, 시설요양은 주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됨.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90%까지 차등이 생기며, 전체 본인부담금의 평균을 보면 재가급여는 20%, 시설급여는 35%에 이릅니다.⁵⁾
 - 월 소득 €710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2,830 이상의 수급자는 소요금액의 9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고 10%만 혜택 받음.

■ 미국의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Medicare)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공적 의료보험체계로서의 포괄성이 부족함.

- 2009년 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요양 비용은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43%를 차지했으며 약 3백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음.⁶⁾
- 메디케이드는 주로 시설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설요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의 대부분을 소진해야하며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함.⁷⁾
- 메디케어⁸⁾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병상(최장 100일)과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로 수혜자는 3주 후부터 100일 사이의 혜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2009년 기준 하루 \$133)을 지불해야 함.⁹⁾
- 메디케이드는 빈곤층만을 커버하며, 메디케어는 장기요양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공적 LTC 제도는 포괄성에서나 보장성에서 한계가 있음.¹⁰⁾

5)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 수준은 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 수준이며,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 비율이 확정되어 있음.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일정소득 이하는 일반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부담하고,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6) Kaiser Commission(2012).

7)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이 월 \$698 이하, 개인자산도 \$2000 이하이어야함.

8) Social Security 수급자의 의료비를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장기요양비용을 보장하지 않음.

9) 준 사설(semi-private) nursing 비용의 중앙값이 하루 \$192임을 감안하면 본인부담금 비중이 50%가 넘을 뿐만 아니라 100일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개인의 부담임.

10) 최근 메디케어를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정부는 탈퇴옵션을 가진 자동가입 공적 LTC제도인 CLASS Act(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를 도입함. 자세한 내용은 OECD(2011) Box 9.2를 참조하기 바람.

〈표 2〉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비용 지출 비교

구분	프랑스	미국
공적 LTC제도	공적간병수당제도(APA)	메디케이드
재원조달	중앙 및 지방세, 사회기여금	연방과 주정부 조세
대상자	60세 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급여지급방식	현금급여	현물서비스(주로 시설요양)
본인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화 (0~90%)	시설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이 거의 없어야 함.

자료: SCOR(2012); 보건사회연구원(2012); 오영수(2008)를 재구성함.

■ 프랑스와 미국의 공적 LTC제도는 포괄성, 급여지급방식에서 차이가 있음.

- 프랑스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빈곤 노인층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음.
- 프랑스는 현금 급여 지급방식인 반면 미국은 현물서비스(in-kind)를 주로 제공하고 있음.
- 프랑스 공적 LTC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큰 폭으로 차등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보충형 민영 보험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나. 민영 장기간병보험 비교

■ 미국과 프랑스는 민영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들이며¹¹⁾ 상품 판매 규모면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대략 7백 7십만 건, 프랑스는 5백 5십만 건의 보험 계약이 존재함.¹²⁾
- 40세 이상 성인 인구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민영 LTCI 가입비율이 프랑스가 15%, 미국은 5%에 머무르고 있음.¹³⁾

11) 미국은 30년, 프랑스는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12)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HHS)(2012).

13) OECD(2011).

■ 미국과 프랑스의 민영 LTCI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프랑스가 정액형(fixed indemnity model)인 반면 미국은 실손형(reimbursement model)이라는 것임.

- 만약 보험금 500만 원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한다면 요양비용이 300만 원일 경우 실손형은 실제 비용인 300만원만 지급하는 반면, 정액형은 실제 비용과 상관없이 500만 원을 지급함.
- 미국의 LTCI 계약의 단위는 대체로 개인이며 간병 및 제반 서비스비용을 특정 한도까지 상환해주며 의료 보험 상품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보장기간은 보통 5년이고(2년형과 종신행도 있음) 보험계약 시 최대 급여 한도액, 면책 기간, 물가상승 반영 여부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음.
- 프랑스의 LTCI 계약의 단위는 개인 혹은 단체이며 자립등급 판정에 따라 매월 정해진 현금급여를 지급하며 장애 연금의 성격을 가짐.
 - 상품의 종류는 크게 종신행(lifetime level premium products)과 책임형(risk premium products; statutory mutual contract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종신행의 경우 평생 동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정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데 리스크 변화에 따라 보험료 갱신이 가능함.¹⁴⁾
 - 책임형의 경우는 의료보험의 부가적인 계약으로 의료보험 멤버십이 지속되는 기간에서만 위험이 보장되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종신행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함.

■ 미국과 프랑스의 민영 LTCI 가입자는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수록,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민영 LTCI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경우 LTCI 가입자의 60%가 55~70세의 연령대였고, 55% 이상이 여성이었으며, 60%가 대졸자, 70% 이상이 배우자가 존재하며 소득과 유동자산이 각각 5만 불과 10만 불 이상임(OECD 2011).
- 프랑스의 경우도 Courbage and Roudaut(2008)의 실증조사에 따르면 LTCI 구매자의 연령대는 55~66세이며,¹⁵⁾ 가족수발을 제공할 배우자와 자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

14) 종신행의 경우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8년)을 채우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부분적 혜택을 볼 수 있음.

육 수준이 높을수록, 특히 상속재산이 클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 프랑스 정액형 LTCI 상품의 보험료가 실손형인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함.

-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공적 간병보험(APA)의 급여보다 조금 더 지불하는 커버리지를 선택함.¹⁶⁾
 - 2008년 60세 노인 기준 월 \$840을 지급하는 보험 계약의 연평균 보험료는 \$420이었음 (HHS 2012).
- 미국의 경우 2010년 60세 노인 기준 1일 최대 한도액(\$100, \$150, \$200)까지의 간병 비용을 상환해주는 보험계약의 연평균 보험료는 \$2,100~\$2,500이었음.¹⁷⁾
- 이처럼 미국의 보험료가 높은 것은 미국의 민영 간병비용이 높은 것이 주요인임.¹⁸⁾
 - 2012년 미국 민영 너싱홈 평균 비용은 연간 \$88,000이었고,¹⁹⁾ 시설케어의 기본 비용은 \$41,000이었음.
 - 반면, 2010년 프랑스의 장기요양 비용은 연간 \$25,000~\$50,000 정도 수준임.

〈표 3〉 미국과 프랑스의 민영 LTCI 상품 비교

구분	프랑스	미국
급여 종류	정액형(일시불+연금)	실손형(최대 한도 존재)
60세 기준 보험료 ¹⁾	연평균 \$420	연평균 \$2,100~\$2,500
60세 기준 보험급여 ¹⁾	연평균 \$10,080	최대 한도액 연 \$36,500(1일 \$100) ~\$54,750(1일 \$150)
갱신여부	갱신형	갱신형
평균보장기간	종신형, 책임형(5~10년)	5년
유예기간 ²⁾	90일	90일
물가상승	반영함	반영함
단체보험비중	45%	30%

주: 1) 프랑스는 2008년 기준, 미국은 2010년 기준임. 2) 가입자가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 유예기간은 단기 요양에 대한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것임.

자료: OECD(2011); SCOR(2012); HHS(2012).

15) 최대 가입 연령은 75세임.

16) 프랑스 공적 간병보험인 APA의 급여는 달러로 월 \$771 수준.

17) Kathleen Ujvari(2012).

18) DREES and AXA(2010).

19) 10개 주에서는 \$100,000을 넘어섰음.

3. 정액형 민영 LTCI와 가족 내 모럴해저드

가.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가족 내 모럴해저드

■ 보험 수요측면에서 볼 때 장기요양의 위험이 높고 그 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중상위 소득계층 가운데 소수만이 민영 LTCI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장기요양보험퍼즐’이라 함.

-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혹은 무상으로)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영 LTCI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
- 그러나 상속으로 물려줄 충분한 자산을 소유한 중간 이상 소득계층이 민영 LTCI를 구매하지 않는 경향은 설명하기 어려움.²⁰⁾
- 가족으로부터 받는 돌봄(수발) 서비스와 민영 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를 통해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²¹⁾

■ Pauly(1990)가 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한 ‘가족 내 도덕적해이 이론’은 부모는 공식수발²²⁾보다 가족수발²³⁾을 선호하며 자식은 미래에 받을 유산이 장기요양비용으로 소모되지 않게 지키려는 유인이 있음을 고려함.

- 부모의 장기요양을 위해 공식수발을 구매할 경우 그 비용만큼 부모에게서 받을 유산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식은 직접 수발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비용을 줄여 미래의 유산을 보호하려함.

■ ‘가족 내 도덕적해이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민영 LTCI에 가입해 있을 경우 자식들은 직접 수발을 제공하는 대신 공식수발을 이용하려 하므로 가족수발을 선호하는 부모는 민영 LTCI를 구매하지 않으려 함.

20) 일어날 확률이 적고 고비용이면서 최근에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무시하는 소비자의 경향으로 장기요양보험퍼즐을 설명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향은 의료보험 관련해서는 흔하지 않음 (Pauly 1990).

21) 장기요양퍼즐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Brown and Finkelstein(2011)과 Cremer et al.(2012)을 참조.

22)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정부가 공적 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23) 자식이나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받는 돌봄 서비스.

- 부모가 LTCI를 구매한 경우 공식수발 비용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보험에 의해 커버되므로, 이는 공식수발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그만큼 자식이 직접 수발을 제공할 유인은 줄어듦(자식의 모럴해저드).
- 따라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수발을 유도하기 위해 민영 보험을 구매하지 않으려 함(부모의 모럴해저드).

나. 정액형과 실손형의 가족 내 모럴해저드 차이

■ Klimaviciute(2013)는 보험 급여액이 같은 경우 정액형 상품은 실손형에 비해 공식수발 이용을 낮추고 가족 내 모럴해저드도 이에 따라 낮아져 정액형 민영 LTCI에 대한 수요가 실손형에 비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임.

- 정액형은 공식수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현금급여를 본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자식의 수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여 공식수발서비스 이용이 줄어듦.
- 반면, 실손형은 공식 수발 서비스를 구매한 만큼 상환(reimburse)해주는 방식이므로 가족수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보상받을 수 없음.
- 가족 내 모럴해저드는 공식수발서비스가 가족수발을 구축하여(crowding out) 생기는 현상이므로 공식수발이 감소하면 그만큼 가족 내 모럴해저드도 감소하게 됨.
- 따라서 정액형 상품의 경우 민영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수요를 억제시켰던 가족 내 모럴해저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실손형에 비해 수요가 커질 수 있음.

■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부모가 가족수발을 공식수발보다 선호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이나 배우자에 대해 매우 이타적이라면 오히려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영 보험을 구매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²⁴⁾

- 모럴해저드 이론은 부모와 자식의 이기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이나 가족 상호 간에 이타심도 존재함.
- 이타심의 정도에 따라 가족수발이 민영 LTC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24) Pauly(1996).

4. 그 외 프랑스의 상대적인 성공 요인

■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프랑스 민영 LTCI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함.

가. 공사 장기요양보험의 상호 보완관계

■ 노인인구의 경우 장기요양의 위험이 높고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요양서비스는 공적으로 보장될 수밖에 없으며,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접근성(access), 포괄성(comprehensiveness), 재정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 형평성(equality) 측면에서 민영 보험에 비해 장점이 있음.²⁵⁾

- 특히 민영 LTCI의 경우 장기요양위험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인구 계층(예, 70세 이상 노인)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음.

○ 반면, 민영 보험은 공적 LTC에 비해 간병의 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공적 LTC를 통해 전체 노인인구의 장기요양 위험을 커버하되 민영 LTCI가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공적 장기요양서비스가 민영 보험에 대한 수요를 구축시킨다는 논의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결과가 충분하지 않음.

○ 소득 및 자산조사를 시행하는 미국의 메디케이드와 프랑스의 APA에서 이러한 구축효과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²⁶⁾

-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을 모두 소비하거나 감추려 하는 행위 그리고 자식에게 증여로(inter-vivos gift)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려는 행위 등이 가능함.

25) OECD(2011).

26) 구축효과를 주장하는 논의에 따르면 실제로 공적 LTC 프로그램의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기만 한다면, 이러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통해 너싱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여재산 전부가 장기요양에 지출되었다고 가정한다해도 증여재산의 규모는 장기요양에 지출된 메디케이드 비용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함.²⁷⁾
-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주 대상은 중상위 소득층이고 이들은 공적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낮고 자산조사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축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프랑스의 공·사 장기요양보험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공적 LTC가 전체 노인을 커버함에도 불구하고 민영 LTCI 시장이 공적 LTC에 의해 구축되기 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프랑스에서는 민영 LTCI가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거나 또는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완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대다수 민영 LTCI 가입자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적 장기요양의 혜택을 받지 못함.

나. 프랑스 정액형 상품의 장점

■ 정액형은 급여액 규모가 상품 계약 체결 시 결정되므로 미래 비용의 불확실성이 실손형에 비해 낮으며 사업비율 역시 낮아지는 장점이 있음.

- 자립 등급 판정이 실손형에 비해 용이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면 되므로 행정 및 유지비용이 낮아져 사업비율(load factor)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정액형은 현금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율성이 큰 편이며, 상품이 단순하고 심사과정이 간단하여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함.

- 매달 받는 현금 급여를 자식의 수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자

27) Waidmann and Liu(2006), Health and Retirement Survey(HRS) 데이터를 이용함.

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²⁸⁾

- 실손형의 경우는 가족수발자에게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 공식 수발만을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보험 가입자격 조건이 단순하여 소비자가 자격적부심사(underwriting)에 임하는 부담이 적음.
- 영국과 미국의 상품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심사과정과 선택과정의 복잡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Taleyson 2003).

다. 기타 요인

■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단체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어 민영 LTC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낮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음.

- 프랑스에서 단체 LTC 보험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의 45%인 반면, 미국은 30%임(OECD 2011).
-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동안 보험 비용을 지불함.
- 단체 보험은 가입자의 동질성이 높고 젊은 나이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2009년 프랑스 단체보험의 연평균 보험료는 €70 수준으로 개인 보험 상품 평균 보험료(연 €345)의 1/5에 지나지 않음.

28) 프랑스 공적 LTC인 APA도 현금급여를 지급하나 수급자는 현금급여를 간병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반면 민영 보험은 현금급여의 사용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

5. 시사점

■ 가족 내 모럴해저드 이론은 공·사 장기요양보험을 분석할 때 가족 성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의 형태인 부모의 상속과 자식의 돌봄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줌.

- 가족수발은 공식수발과 대체제 관계에 있으므로 공·사 LTC보험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유대가 강하고 그에 따라 가족수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므로 가족 내 돌봄 제공과 상속 유인이 공·사 LTC보험에 영향을 주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각 나라의 유산 상속 행태와 상속세와 같은 제도의 차이도 향후 LTCI 시장의 전망을 평가하는데 고려해 할 요인임을 시사함.

■ 프랑스의 정액형 LTCI 상품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상품을 단순화시키고 자격적부심사(underwriting)를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구매를 활성화시킬 것임.
- 단체 보험은 왕성하게 일하는 젊은 나이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높은 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므로 민영 LTCI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볼 수 있음.

■ 상호 보완적인 프랑스 장기요양보험의 공·사 관계는 향후 급격히 증가할 우리나라 공적 LTC의 비용 부담 감소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함.

-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공적 LTC 제도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함.
-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갖는 공적 LTC의 특성과 실손형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은 정액형 민영 LTCI의 특성이 결합되어 상호 보완적인 공·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²⁹⁾

29) 프랑스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 역시 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공적 의료보험은 의무가입형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을 커버하되 본인부담금이 높은 편이어서 국민의 대다수가(94%)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보충형 민영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음(보건사회연구원 2012).

-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큰 폭으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시킨 방식은 재정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해줄 민영 LTCI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보임.

■ 최근 민영 LTCI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역모기지나 연금에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하는 혼합형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노인 세대인 베이비부머 이후의 젊은 세대로 갈수록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노후준비와 함께 장기요양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혼합형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연금과 LTC 혼합형 상품의 경우 장기요양의 위험에 처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보험금 대신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단독상품에 비해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1. 6. 22), “정부차원의 종합적 장기재정전망 체계 마련 필요”.
- 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편』.
- 오영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조사자료.
- Brown, J. and Finkelstein, A. (2011), “Insuring Long-Term Care in the United Stat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5, No. 4, pp. 119-142.
- Courbage, Christophe and Nolwenn Roudaut(2008), “Empirical Evidence on Long-term Care Insurance Purchase in France”, *The Geneva Papers*, 33, pp. 645-658.
- Cremer, Helmuth, Pierre Pestieau and Grégory Ponthière(2012), “The Economics of Long-Term Care: A Survey”, CORE discussion paper.
- DREES and AXA(2010), Brom & Fischer Geneva Association 7th Health & Aging Conference, November 2010.
- 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2012), *Medicaid and Long-term Care Services and Supports*, Kaiser Family Foundation, Washington, March.
- Kathleen Ujvari(2012), “Long-Term Care Insurance: 2012 Update”, AARP Public Policy Institute, Fact Sheet.
- Kessler, D. (2008),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 Issues and Practice* 33, pp. 33-40.
- Klimaviciute, Justina(2013),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ntra-Family Moral Hazard: Fixed vs Proportional Insurance Benefits”, APET 2013 Conference Lisbon.
- OECD(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 Pauly, Mark V. (1990), “The Rational Nonpurchase of Long-Term-Care Insuranc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1, pp. 153-168.
- _____ (1996), “Almost Optimal Social Insurance for Long-Term Care” in R. Eisen and P. Sloan (Eds.), *Long Term Care: Economic Issues and Policy Solutions*, London, Kluwer.

- SCOR(2012), "Long-Term Care Insurance, *SCOR Global Life Focus*, October, http://www.scor.com/images/stories/pdf/library/focus/LIFE_Focus%20LTC%20EN%2010-2012.pdf
- Taleyson, Lucie(2003), "Private Long-Term Care Insurance - International Comparisons", *Health and Aging*, No. 08, March.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2012), "Long-Term Care Insurance" ASPE Research Brief(<http://aspe.hhs.gov/daltcp/reports/2012/ItcinsRB.pdf>)
- Waidmann, T. and Liu, K. (2006), "Asset Transfer and Nursing Home Use: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Significance", Issue Brief for the Kaiser Commission on Medicaid and the Uninsured, Washington DC.

◆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과 시사점

황진태 연구위원, 박선영 연구위원

1. 검토배경

■ 우리나라 경제적·사회적 환경은 과거 고금리·고성장·아날로그 시대에서 저금리·저성장·디지털 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점차 저금리·저성장 거시환경에 접어들어 따라 보험산업의 성장둔화와 수익성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보험시장 환경하에서 저가상품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판매채널의 비용절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50~60대 인터넷 이용자 수도 급증하고 있음.³⁰⁾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은 78.4%이며, 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94만 명 증가한 3,812만 명으로 나타남.

■ 한편, 판매채널 자체에 대한 이슈로 채널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음.

○ 최근 판매채널 관련 주요 이슈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망카슈랑스 규제 완화 요구, GA채널 모집질서 문란, 불완전판매, 규제당국의 민원감축 요구 등이 있음.

○ 판매채널의 구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영업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판매채널 이슈에 대한 결론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보험회사에 중요한 경영전략이라 할 수 있음.

3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2), 『인터넷 이용행태가 고정형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

■ 이에 본고는 우리나라 보험판매채널의 현황과 이슈를 간략히 살펴본 후,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추세와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채널믹스전략에 대해 논의함.

-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등 신채널이 등장하고 판매채널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믹스전략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임.³¹⁾

2. 우리나라 보험판매채널 현황 및 이슈

가. 현황

■ 우리나라 보험판매채널은 여전히 전통채널인 대면채널이 주된 채널인 가운데, 2000년 이후 비대면 및 독립채널과 같은 신채널이 등장하기 시작함.³²⁾

- 2000년 이전에는 공급자 중심의 전속대면채널이 주력 채널이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독립채널이 등장하는 등 소비자 중심 채널 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함.
 - 2000년 이후 전화(TM) 및 인터넷(CM) 등 직판채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방카슈랑스와 독립대리점 등 독립채널도 나타남.
- 인터넷 채널의 경우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미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들도 최근 동 채널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현재 KDB생명, 현대라이프,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온슈어’)이 본체 내에서 인터넷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보생명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인터넷 전용회사(‘e-교보’)를 설립할 예정임.
- 한편, 보험회사의 대안채널로 등장한 신채널에 대해 전속채널 기반이 약한 중소형사에 새로운 채널이 제공되었다는 긍정적 평가 외에도 일부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모집질서 문란 등과 관련하여 신채널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음.

31) 정홍주(2000)가 지난 2000년경 금융 자유화와 겸업화에 따라 판매채널에 대한 보험회사의 다양한 믹스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환경변화에 따른 판매채널믹스에 대한 연구는 부진함.

32) 안철경·변혜원·서성민(2010),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모집종사자 수는 FY2012 기준으로 약 39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보험대리점 수는 감소 추세임.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수는 생손보 모두 FY2010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FY2012 기준 설계사 수는 23만 8,000명임.

○ 한편, 보험대리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대리점 내 사용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월 말 기준 15만 3,000명임.

- 이러한 보험대리점의 감소 추세는 개인 및 중소형 대리점이 대형 대리점에 통합되거나 지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형태로 연합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일부 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보험영업 종사 설계사 수

(단위: 천 명, 백 개)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전속설계사	생보	146	140	132	143	145
	손보	82	83	84	88	93
	전체	228	223	216	232	238
	증감률(%)	5.6	-2.2	-3.0	7.1	2.9
보험대리점	생보	131	127	98	90	77
	손보	460	451	420	398	376
	전체	591	577	518	488	453
	사용인 수	-	121	133	138	153

주: 1) 보험회사 전속설계사는 교차설계사 제외.

2) 사용인 수는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2013. 6월 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 판매채널별 판매실적으로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비중이, 손해보험은 대리점 비중이 가장 큼.

○ 생명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방카슈랑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FY2012에는 68.2%를 차지함.

- FY2012에 크게 늘어난 방카슈랑스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농협생명의 판매실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농협생명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실적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대리점이 40%를 상회하는 판매실적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손해보험도 방카슈랑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FY2012에는 그 비중이 12.6%를 차지함.

〈표 2〉 보험판매채널별 영업실적 비중

(단위: %)

구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생명보험	임직원	17.8	27.0	21.0	21.3	4.5
	설계사	36.0	27.1	26.1	24.7	21.0
	대리점	8.8	7.0	6.8	7.1	6.3
	방카슈랑스	37.3	38.6	45.5	46.6	68.2
손해보험	임직원	14.0	14.8	15.6	15.5	15.0
	설계사	33.2	33.3	32.2	31.1	30.1
	대리점	46.3	45.1	44.5	42.5	41.5
	방카슈랑스	5.3	5.7	6.6	10.0	12.6

주: 생명보험은 초회보험료,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나. 판매채널 관련 주요 이슈

■ 최근 보험산업을 둘러싼 이슈로는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있으며,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 시 전속채널 기반이 강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구조에 많은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보험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시 상당수의 저능률 설계사가 해촉될 것으로 예상되고,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고용계약이 된 보험설계사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3월 기준 생명보험의 경우 해촉 가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최저임금 미달자, 여성, 50대 이상이 생명보험설계사 전체에서 각각 24.8%, 74.8%, 21.7%를 차지함.

- 한편, 보험설계사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78.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가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고용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함(황진태 · 이해랑 2013).

■ 한편, 방카슈랑스와 GA 등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모집질서 문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은행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와 보험회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됨.
 -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응답자 중 23.3%가 구속성 보험계약(‘끼기’)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전용식 외 2013).
 - 한편, 방카슈랑스 채널(예, 은행)이 보험회사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방카슈랑스 채널 의존도가 높은 방카사의 경우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³³⁾
 - 또한, 방카슈랑스 채널에 의존도 높은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은행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함.
- 한편,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한 GA채널의 경우 재무설계 및 컨설팅 제공이라는 순기능보다는 보험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그 예로 중소형 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사형 GA를 설립하거나 대형 대리점에 매집을 유도함.
 - 미활동 사용인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자격모집을 비롯해 보험 계약자에 대한 유지관리에 소홀함.
 - 또한, 전속채널에서 GA로 이직한 설계사가 자신의 고객에 대해 승환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함.
- 이러한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혼란 야기에 대해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대형 독립채널에 대해서는 부실판매에 대해 판매자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33) 생명보험회사의 FY2012 자본이익률(ROE)의 경우 외국사 7.3%, 중소형사 7.1%, 대형사 6.4%, 방카사 1.4%로 나타남. 여기서 방카사는 우리아비바생명, KB생명, 하나HSBC생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임.

3.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추세³⁴⁾

■ 본 장에서는 저금리·저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글로벌 보험산업의 채널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경제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 보험판매채널 전략의 추세와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직면한 판매채널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미래 환경변화에 적합한 채널경영전략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최근 글로벌 보험산업의 경우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 신채널의 성장 모멘텀이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다양해지고 있고, 보험회사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기술발달로 보험상품에 대한 편리한 설명, 고객반응 대기시간 감소, 동시다발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짐.
- 또한, 기술발달과 경쟁심화로 보험회사는 점차 저비용 멀티채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됨.

■ 한편,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상품 정보와 보험상품 간 비교 시 이러한 도구 활용을 선호함.

- 2010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의 3,555명 보험소비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³⁵⁾ 응답자의 34% 가량이 최소한 한번 이상 인터넷을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응답자 중 43%는 향후 1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 의사를 밝힘.

34) Bhattad, M.(2012), Trends in Insurance Channels, Capgemini.

35) Accenture(2010), *Changing Channels: Accenture Multi-Channel Distribution Insurance Consumer Survey*, p. 14.

〈표 3〉 보험소비자의 판매채널 이용 경험과 계획

(단위: %)

구분	과거 사용경험 있음	향후 1년 내 사용계획 있음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59	49
인터넷	34	43
은행	33	27
보험중개인	20	18
텔레마케터	18	16
보험설계사(retailer)	8	7

자료: Accenture(2010), Changing Channels: Accenture Multi-Channel Distribution Insurance Consumer Survey.

■ 또한, Facebook, LinkedIn, Twitter, Google+ 등 소셜(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들도 급속히 증가함.

- 보험회사도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피드백을 보험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

소셜(모바일) 미디어 활용사례³⁶⁾

◆ Genialloyd(알리안츠 그룹의 이탈리아 직판 보험영업파트) 사례

- 현재 이탈리아 직판 보험회사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동 회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보험영업을 주력으로 키울 예정임.
-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는 Facebook, Twitter, Google+, YouTube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해 해당 보험료 수입이 2009~2011년 사이에 매년 24.2%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산비율(combined operating ratio)에서도 다른 경쟁사보다 양호한 수준을 보임.
-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메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수집된 모든 질문과 불만사항이 한 군데로 접수돼 일원화되어 관리되고 백오피스 기능을 최적화하는데 활용됨.

36) Capgemini & Efma(2013), *World Insurance Report*, p. 42.

- 예를 들어, “Super Fast Quote”는 고객들이 Facebook상에 제공된 자동차보험 가격에 대해 “like”를 누르면 자동으로 보험가입 링크로 넘어가며 지불시스템을 통해 최종가입이 확정됨.
- Facebook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은 4%에 해당하는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받음.
-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서 전송하면 가입심사 관련 결과와 추천상품 정보를 제공받는 앱도 개발됨.

■ 한편, 신채널은 채널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브로커 등 전통적 채널의 모집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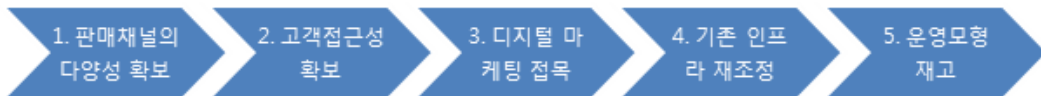
- 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채널은 고객과 상담사로 하여금 다양한 상품을 큰 어려움 없이 비교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줌.
- 서유럽의 경우 이러한 신채널 활용도가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등 이머징 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들 이머징 마켓도 신채널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유럽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북미지역의 경우 최근 들어 보험회사들은 슈퍼마켓이나 동호인 단체 등과 제휴하여 공동투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4. 글로벌 보험판매채널의 믹스전략

가. 보험판매채널 믹스전략

- 종합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인 Accenture³⁷⁾가 제시한 보험판매채널 믹스전략 성공을 위한 5단계로 ① 판매채널의 다양성 확보, ② 고객접근성 확보, ③ 디지털 마케팅 접목, ④ 기존 인프라의 재조정, ⑤ 운용모형의 재고 등이 있음.

〈그림 1〉 보험판매채널 믹스전략 5단계



자료: Accenture(2010), Channeling Growth: Accenture 2010 Global Survey on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p. 26.

- 1단계: 판매채널의 다양성 확보 단계에서는 다양한 보완적 채널을 개발하고 고객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한 선호채널을 파악
- 2단계: 고객접근성 확보 단계에서는 고객접근성을 높이는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시간 정보제공과 피드백이 가능한 정교화된 서비스를 제공
- 3단계: 디지털 마케팅 접목 단계에서는 신기술을 이용해 세분화된 고객니즈를 파악해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과 매칭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4단계: 하나의 IT 플랫폼에 다양한 채널과 상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운용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해 다채널을 활용한 고수익 창출
- 5단계: 운용모형 재고 단계에서는 상품, 서비스, 가격, 채널 등 전반적으로 솔루션 중심의 접근을 저해하는 모든 활동을 재검토

- 수익성 창출과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한 통합된 판매채널 믹스전략의 원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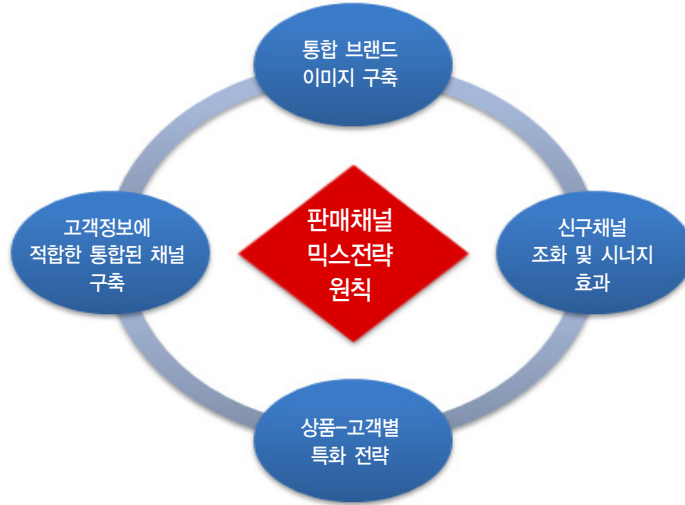
37) Accenture는 기업 또는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전략 및 기술 지원, 아웃소싱 전략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회사로 전세계 50개국 200여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총 직원 수는 27만 5,000명에 달함.

- 전통채널을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이렉트 채널과 통합하고 이러한 멀티채널을 통해 소비자가 하나의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 통합을 전제로 고객의 채널 및 상품 선호도 등을 종합해 고객들을 세분화하고 채널별 고객 데이터와 세부적인 고객 프로파일을 작성함.
- 정보수집 단계에 그치고 있는 고객들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행태를 실제 판매로 이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정보에 적합한 통합된 채널 구축이 중요함.
 - 고객의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고객응대부터 심사 및 계약체결까지 시스템적으로 통합된 채널을 구축해 고객의 최초 응대가 유기적으로 마지막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모바일이나 인터넷이 여전히 구매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은 서비스 위주로 운용하고 최종 판매단계는 대면채널이나 설계사를 이용하는 등의 채널믹스를 고려함.
 - 보험계약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실제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콜센터나 보험대리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고객들의 교차채널 성향을 마케팅 전략에 반영해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계약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설계사에게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구채널과 신채널의 판매단계별 조화가 중요하며, 채널 간 충돌을 최소화하고 산업의 환경과 기조변화에 따른 채널전략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함.
 - 판매채널 믹스전략의 핵심은 회사별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채널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널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는 것임.
- 상품과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채널별 특화전략이 필요함.³⁸⁾
 - 고객 세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고객은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하는 high-touch channel로, 반면 저부가가치 고객은 대면접촉이 없는 low-touch channel로 분류하는 등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채널별 특화전략이 수익성 확대에 기여함.

38) Bridge Strategy Group(2010), *Confronting Insurance Distribu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p. 1-4.

- 예를 들어, 단순한 상품의 경우 별도의 모집인 없이 직판채널을 이용하는 반면, 고도의 자문설계를 요하는 연금이나 복합생명보험 상품 등은 전통적인 대면채널에서 판매를 특화함.

〈그림 2〉 보험판매채널 믹스전략 원칙



나. 보험판매채널 믹스와 고려사항

■ 판매채널 믹스전략을 위한 투자결정 시 고려사항과 믹스전략 운영 시 중점사항에 대해 114명의 글로벌 보험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음.³⁹⁾

- 판매채널 믹스전략 투자 시 신규 고객층 발굴과 고객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한 기존 고객 유지관리, 크로스셀링(cross-selling)과 업셀링(upselling)의 기회 확대,⁴⁰⁾ 전통적인 판매채널의 생산성 향상, IT 인프라의 최적화, 상품개발 시간 단축, 자연스러운 채널 전환, 채널 간 마찰 감소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 믹스전략 운영 시 중점사항으로는 모바일 채널 형성, 정보 집중화, 채널 간 통합 및 협력, 소셜 미디어 활용, 대리인/브로커 지원, 기능 간 상호작용 등임.

39) Capgemini & Efma(2013), *World Insurance Report*.

40) 참고로 크로스셀링은 기존 고객에 다른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는 행위이며, 업셀링은 동일한 타입의 상품 중 여러 기능과 옵션을 부가해 보다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임.

■ 글로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⁴¹⁾ 판매채널 투자 시 인터넷·모바일 등 신기술, 고객니즈의 변화, 규제 등이 주된 고려사항으로 나타남.

- 2009년 12월~2010년 4월 동안 125개 글로벌 보험회사(61개 손보사, 64개 생보사)의 판매, 마케팅, 채널전략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3년 내 판매채널 투자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화 설문함.
- 응답자 중 85%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 신기술이, 84%는 접근성에 대한 수요나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 고객니즈나 태도 변화가 판매채널 투자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응답함.
- 이 외에도 보험회사의 투명성 및 자문에 대한 규제, 증가하는 자문서비스의 중요성, 저가상품에 고객의 선호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표 4〉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련 투자 시 고려사항

투자 시 고려사항	향후 3년 내 투자결정 시 중요함의 응답률(%)
신기술(인터넷, 모바일)	85
고객니즈나 태도 변화	84
새로운 규제	81
자문서비스 중요도 증가	81
저가상품에 대한 고객니즈	77
시장참여자 간 차별성 부족	72
고객유치 비용 증가	68
통합채널의 부족	63
신시장 진출 및 점유율 확대	53
판매조직 인력의 고령화	53
신규 진입자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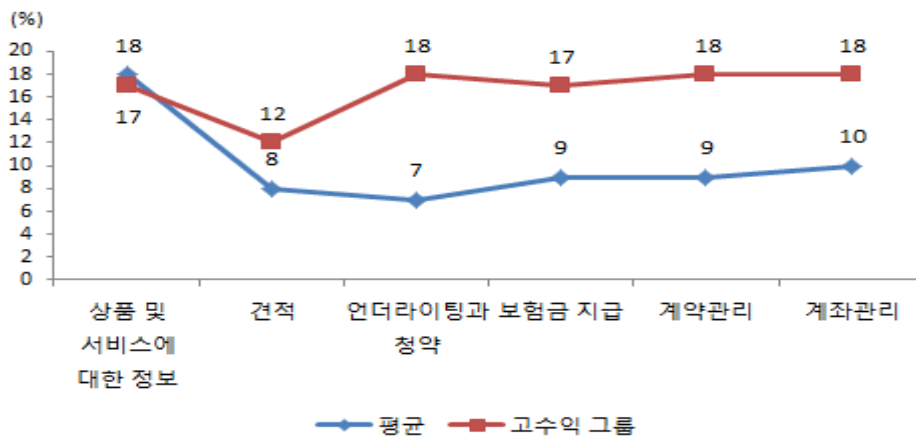
자료: Accenture(2010), *Channeling Growth: Accenture 2010 Global Survey on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p. 16.

41) Accenture(2010), *Channeling Growth: Accenture 2010 Global Survey on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 한편, 이들 글로벌 보험회사의 경우 판매채널 통합을 위한 투자금액과 보험회사 수익성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3년간 멀티채널 전략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의 수익성이 높은 보험회사들의 경우 1억 2,600만 달러로 글로벌 보험회사 평균 8,400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임.
- 수익성이 좋은 보험회사들은 견적, 언더라이팅과 청약, 보험금 지급 및 관리, 계약 및 계좌관리 등 보험계약 전반에 걸쳐 평균보다 높은 모바일 서비스 제공 비율을 보여주었고, 향후 모바일 및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투자계획 규모도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판매단계별 모바일 서비스 제공 비율



자료: Accenture(2010), *Channeling Growth: Accenture 2010 Global Survey on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p. 20.

5. 결론 및 시사점

■ 보험회사의 채널경영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장기적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기존 채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를 들어, 전속대면채널 기반이 강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기존 설계사 채널의 고능률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해당 채널의 장점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법률이 통과될 경우 전속설계사 채널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함.
- 반면, 전속채널 기반이 약한 중소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와 GA 등 대형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판매채널 구축을 통한 채널 간 경쟁 촉진이 필요함.
- 열악한 채널환경을 가진 중소형사의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대형 독립채널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모집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형 독립채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책임 규제와 별도의 관련 모범규준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편, 해외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보험산업은 향후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신채널을 통한 성장모멘텀이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저금리·저성장 환경에서 저가상품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비용채널 구축을 위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음.
-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급증함에 따라 이들 도구를 활용한 채널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채널전략 구축 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찰과 예측이 필요하며, 해외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이러한 환경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적합한 채널구축이 보험 회사의 경영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회사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멀티채널 전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앞서 믹스전략 원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멀티채널 전략 시 신채널의 단순한 도입보다는 해당 보험회사의 기존 채널과의 조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널경영전략의 중요한 목표임.
- 한편, 판매채널의 비용경제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경제성 고려 시 장기적 시각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위기상황 시 채널의 신뢰성이 중요해질 수 있는데, 이 때 전속대면채널이 보험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음.
 - 실제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연납화 보험료 기준으로 전속채널의 비중이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2008년 36%, 2009년 41%, 2010년 41%, 2011년 40%).

■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멀티채널전략 구사 시 복잡한 환경변화, 보험회사의 경영목표, 위기 시 관리능력, 보험시장 내 경쟁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2), 『인터넷 이용행태가 고정형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2010),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경영보고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기승도 · 이상우 · 최원(2013), 『2013 보험소비
 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정홍주(200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개발원.

황진태 · 이해랑(2013),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KiRi Weekly』, 보험연구원.

Accenture(2010a), *Changing Channels: Accenture Multi-Channel Distribution Insurance Consumer Survey*.

_____ (2010b), *Channeling Growth: Accenture 2010 Global Survey on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Bhattad, M. (2012), *Trends in Insurance Channels*, Capgemini.

Bridge Strategy Group(2010), *Confronting Insurance Distribu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apgemini and Efma(2013), *World Insurance Report*.

Chakraborty, B. K., A. Jhunjhunwala, and S. Biswas(2013), *Building a Collaborative Multichannel Insurance Distribution Strategy*, Cognizant.

Chander, A. (1962), *Strategy and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American Industrial Enterprise*, Cambridge, MA: MIT Press.

Ⅱ.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2013년 2/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 일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유로존 성장률이 증가세로 전환하여 선진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

■ 2013년 2/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1/4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유로존 성장률은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일본과 중국의 경우 소폭 둔화되었음.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분기대비 1.4%p 상승한 2.5%를 나타냈으며, 유럽 경제성장률도 1.2%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함.
- 반면 일본의 경우, 투자와 수출 둔화로 2/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1.2%p 축소되어 2.6%를 기록하였으며 중국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4분기보다 0.2% 하락한 7.5%를 기록함.

〈표 1〉 세계경제 성장률¹⁾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3.9	3.1	0.7	0.8	0.6	0.7	0.6	0.7	-
선진국 ²⁾	1.7	1.2	0.3	0.4	0.1	0.3	0.0	0.3	-
신흥국 ²⁾	6.2	4.9	1.1	1.1	1.3	1.3	1.3	1.1	-
미국	1.8	2.8	4.9	3.7	1.2	2.8	0.1	1.1	2.5
유로	1.5	-0.6	-1.4	-0.2	-0.7	-0.4	-1.9	-0.6	1.2
일본	-0.6	2.0	0.3	6.1	-0.9	-3.6	1.0	3.8	2.6
중국	9.3	7.8	8.9	8.1	7.6	7.4	7.9	7.7	7.5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3. 7), 단 개별국가 및 유로지역은 각국 발표치.

■ 2013년 2/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유로존 등의 완만한 경기 회복으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00.0을 나타냄.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중국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함.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²⁾	100.5	99.8	100.0	100.0	99.8	99.7	99.8	99.9	100.0
선진국 ³⁾	100.4	99.9	99.8	100.0	99.9	99.8	99.9	100.2	100.5
미국	100.0	100.1	99.6	100.1	100.1	100.0	100.2	100.6	100.9
유로	100.9	99.5	99.9	99.8	99.5	99.2	99.3	99.7	100.2
일본	100.2	100.0	100.1	100.2	100.1	99.8	99.9	100.4	101.0
중국	101.1	99.8	100.2	99.9	99.7	99.7	99.9	99.9	99.6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3년 2/4분기 세계 무역규모는 미국, 유로존의 수출이 회복되었으나 중국의 수출 증가율(18.9%→4.1%)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4분기대비 0.3%p 낮아진 1.7% 증가하였음.

○ 선진국의 경우 무역규모는 1/4분기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며, 신흥국은 무역규모 증가세는 전분기대비 1.5%p 둔화되었음.

〈표 3〉 세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세계 ¹⁾	5.9	1.9	2.9	2.1	2.8	1.1	1.5	2.0	1.7
선진국	4.3	0.1	1.3	0.8	1.3	0.0	-1.7	-1.3	-0.4
신흥국	7.9	3.9	4.7	3.6	4.6	2.4	5.0	5.5	4.0

주: 1) 2013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3년 2/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3.4%를 기록함.

- 선진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와 동일한 1.7%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5.4%를 기록함.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우려,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 개발¹⁾ 등으로 WTI 현물지수와 두바이 현물지수는 각각 전분기대비 6.8%, 6.6% 하락하였으며, CRB지수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대비 3.8%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2			2013			2012			2013	
	연간	3/4	4/4	1/4	2/4 ³⁾		연간	3/4	4/4	1/4	2/4
세계	3.4	3.2	3.2	3.4	3.4	두바이 현물지수	108.1	106.3	107.5	107.3	100.2
선진국	2.0	1.8	1.8	1.7	1.7	WTI 현물지수	94.0	92.2	88.1	100.7	93.9
신흥국	5.2	4.9	4.9	5.5	5.4	CRB 상품지수 ²⁾	301.2	303.0	298.5	297.2	285.8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3) 예상치.

자료: IMF WEO(2013, 4); 한국은행.

1) 미국 내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생산량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E)
셰일가스 (조 입방피트)	4.86 (22.79)	7.82 (34.13)	8.13 (34.02)	8.60 (35.82)
셰일오일 (백만 배럴/일일)	0.82 (15.0)	1.22 (21.5)	2.00 (31.5)	2.30 (33.7)

주: 괄호 안은 미국 내 천연가스, 원유 생산량 중 셰일가스와 타이트 오일이 차지하는 비중임.

셰일오일의 수치는 타이트 오일과 합쳐진 생산량임. 유종으로는 셰일가스와 타이트오일은 동일하므로 표기의 편의상 셰일오일로 표기함.

자료: EIA(2013),

가. 미국경제

2013년 2/4분기 미국 경제는 무역적자 축소와 기업투자 증가로 회복세를 보임.

〈최근 동향〉

■ 2013년 2/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세 지속, 민간투자 확대, 수출 증가 전환으로 1/4분기보다 1.4%p 상승한 2.5%를 기록함.²⁾

- 민간소비는 고용 시장 개선과 주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가계 디레버리징 완화,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³⁾ 등으로 전분기보다 1.8% 증가함.
- 민간투자는 주택투자(14.2%)를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4.5%p 상승한 9.2% 증가하였음.
- 설비투자는 6.5%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건설 증가로 주택투자는 14.2% 늘어남.
- 수출은 유로존 경기의 둔화폭이 줄어들면서 8.0% 증가하였으며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로 수입도 6.9% 늘어났으나, 시퀘스터 발동으로 정부지출은 0.4% 감소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분)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GDP	1.8	2.8	4.9	3.7	1.2	2.8	0.1	1.1	2.5
민간소비	2.5	2.2	2.4	2.9	1.9	1.7	1.7	2.3	1.8
서비스	3.4	3.3	5.0	4.6	2.2	3.7	3.7	3.7	3.1
재화	2.1	1.6	1.1	2.1	1.7	0.7	0.6	1.5	3.2
민간투자	4.9	9.5	31.9	10.5	-1.6	6.5	-2.4	4.7	9.2
설비	6.2	8.3	10.0	8.6	4.7	2.7	11.6	-1.5	6.5
주택	0.5	12.9	12.2	23.0	5.7	14.1	19.8	12.5	14.2
수출	7.1	3.5	2.7	4.2	3.8	0.4	1.1	-1.3	8.0
수입	4.9	2.2	5.9	0.7	2.5	0.5	-3.1	0.6	6.9
정부지출	-3.2	-1.0	-1.5	-1.4	0.3	3.5	-6.5	-4.2	-0.4

주: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3. 9),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2013년 2/4분기 미국 GDP는 새로운 산정방식 적용으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R&D 부문, 엔터테인먼트, 예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비용이 고정투자로 집계됨. GDP 산정방식이 수정됨에 따라 2012년 연간 GDP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0.8%p 상승한 2.8%로 수정되었고 2013년 1분기 GDP는 전기대비 연율 1.8%에서 1.1%로 0.7%p 하향 수정됨.

3)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전분기대비 연율, %): 2013년 1/4분기 -7.9% → 2/4분기 3.2%

〈내수부문〉

■ 고용상황 개선과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개인소득⁴⁾ 회복으로 소매판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2/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9%를 나타냈으며, 7월 0.4%, 8월 0.2%를 기록하며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반면 2/4분기 소비자신뢰지수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전기대비 12.3p 상승한 75.1을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주가 상승 및 주택시장 회복, 에너지가격 하락 등으로 81.0으로 상승하였음.

■ 2013년 2/4분기 주택경기는 기존주택 판매⁵⁾가 증가세를 보이고 주택가격은 상승한 반면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으로 신규주택 착공은 감소하였음.

○ 신규주택착공호수는 2/4분기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9.3% 감소하였으나 7월 5.7% 증가로 전환하였음.

○ 주택가격지수는 2012년 1/4분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2013년 2/4분기 전분기대비 6.6p 상승한 156.8을 기록하였으며 7월에도 상승세를 보임.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7.5	5.3	1.8	1.7	0.3	1.2	1.4	1.0	0.9	0.4	0.2
소비자신뢰지수 ²⁾	58.1	67.1	53.9	67.5	65.3	65.7	69.7	62.8	75.1	81.0	81.8
신규주택착공호수 ³⁾ (%)	4.5	28.0	8.4	6.4	3.7	5.5	14.7	6.8	-9.3	5.7	0.9
주택가격지수 ⁴⁾	140.0	141.3	138.3	137.2	140.0	142.5	145.2	150.2	156.8	159.2	-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4) 개인소득(전기대비): 2013년 1/4분기 -0.93% → 2/4분기 0.2%

5) 기존주택판매(전기대비): 2013년 1/4분기 1.0% → 2/4분기 2.3%

〈생산부문〉

■ 기업의 재고조정 지속으로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비가동률은 회복이 지연되었으나 경기선행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0.2%를 나타냈으며 7월에도 제조업 생산 감소 등으로 0.0%를 기록하였으나 8월 0.4%p 상승함.

- 설비가동률은 2/4분기 77.8, 7월 77.6을 기록하며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1/4분기 52.9에서 2/4분기 50.2로 2.7p 하락하였으나 해외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증가로 7월과 8월 55.4, 55.7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상승함.

○ 경기선행지수는 2013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3.4	3.6	1.2	1.3	0.7	0.1	0.6	1.0	0.2	0.0	0.4
설비가동률 ²⁾	76.8	77.7	77.9	78.0	77.7	77.4	77.6	78.0	77.8	77.6	77.8
ISM제조업PMI	55.2	51.7	52.2	53.0	52.3	50.9	50.6	52.9	50.2	55.4	55.7
경기선행지수 ³⁾	91.3	93.1	91.8	92.7	93.0	93.0	93.5	94.3	95.3	95.9	96.6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2007=100

3) 2004=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고용과 물가〉

■ 2/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실물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로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며 고용시장은 완만한 개선 추세를 보임.

○ 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2/4분기 54만 7,000명으로 전분기대비 7,500명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수는 2/4분기 34만 7,000명으로 전분기대비 1만 명 줄어들었고 7월과 8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였음.

○ 민간투자가 확대되면서 2/4분기 실업률은 7.6%를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0.1%p 하락하였고 7월과 8월 7.4%, 7.3%를 기록하였음.

- 포괄적 실업률도 2013년 2/4분기 14.0%, 7월 14.0%, 8월 13.7%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¹⁾ (%)	8.9	8.1	8.7	8.3	8.2	8.0	7.8	7.7	7.6	7.4	7.3
포괄적 실업률(u-6) ²⁾ (%)	15.9	14.7	15.6	14.9	14.7	14.8	14.4	14.2	14.0	14.0	13.7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만 명)	210.3	219.3	57.0	78.7	32.4	45.6	62.6	62.2	54.7	10.4	16.9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만 명)	40.9	37.5	39.0	37.2	37.8	37.1	37.9	35.7	34.7	34.2	32.9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	3.2	2.1	3.3	2.8	1.9	1.7	1.9	1.7	1.4	2.0	1.5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2.1	2.2	2.3	2.3	2.0	1.9	1.9	1.7	1.7	1.8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	6.0	1.9	5.4	3.4	1.0	1.5	1.7	1.5	1.6	2.1	1.4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2.4	2.6	3.0	3.0	2.7	2.5	2.2	1.8	1.7	1.2	1.1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임.

-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1.4%를, 7월 2.0%를 기록
 - 근원 소비자물가는 2/4분기와 7월 각각 1.7% 상승하였으며 8월에도 1.8% 상승하는데 그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1.6%를 나타냈으며 7월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2.1%를 기록함.
 - 근원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2/4분기 1.7%, 7월 1.2%, 8월 1.1%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음.

나. 유로경제

2013년 2/4분기 유럽경제는 경기침체 폭이 둔화되었음.

〈최근 동향〉

■ 2013년 2/4분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독일(+0.7%)과 프랑스(+0.5%)를 중심으로 성장이 확대되며 7분기 만에 전분기대비 증가(+0.3%)로 전환함.

○ 전 부문이 증가한 가운데 소비(+0.2%), 투자(0.3%), 수출(1.6%)이 성장을 주도함.

- 민간소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0.2% 증가로 전환함.

- 고정자본투자는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전분기대비 0.3% 증가하였음.

- 수출은 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로 전분기대비 1.6% 증가하였고, 수입 역시 전분기대비 1.4% 확대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EA17 GDP	1.5	-0.6	-0.2 (-1.4)	-0.1 (-0.2)	-0.3 (-0.7)	-0.1 (-0.4)	-0.5 (-1.9)	-0.2 (-0.6)	0.3 (1.2)
민간소비	0.3	-1.4	-0.7	-0.4	-0.6	-0.1	-0.5	-0.2	0.2
고정자본투자	1.6	-3.9	-0.5	-1.1	-1.9	-0.4	-1.2	-2.2	0.3
정부지출	-0.1	-0.6	0.2	-0.3	-0.3	-0.2	0.1	0.0	0.4
수출	6.4	2.5	0.3	0.8	1.1	0.6	-0.5	-1.0	1.6
수입	4.3	-1.1	-1.2	0.0	-0.2	0.2	-0.9	-1.1	1.4

주: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3. 9).

■ 지역별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3%p 증가하여 경기하락폭이 줄어들었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성장세가 확대되었음.⁶⁾

6) 유럽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참조.

- 2/4분기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전분기대비 성장세가 확대되었음.
- 독일 경제성장률은 1/4분기 0.0%, 2/4분기 0.7%를 기록하며 성장폭이 확대되었으며 프랑스의 경우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2/4분기 0.5% 성장으로 전환하였음.
-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2/4분기 기업의 재고투자 확대와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0.7%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확대됨.

〈생산 및 내수부문〉

■ 2013년 2/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각각 2.6%, 1.5% 증가함에 따라 1.1% 늘어났으나 7월에는 1.0% 하락하였음.

■ 2013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3% 증가하였으며 향후 경기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음.

- 2/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89.8로 전분기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7월 92.5, 8월 95.3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확대됨.
- 2/4분기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2.8p 상승한 -20.9를 나타냈고 7월과 8월 -17.4, -15.6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유로지역 ESI ¹⁾	101.7	90.4	94.4	95.0	92.3	87.4	86.8	90.1	89.8	92.5	95.3
소매판매 증가율 ²⁾ (%)	-0.3	-1.7	-0.5	-0.4	-0.8	0.1	-1.4	0.3	0.3	0.5	0.7
소비자신뢰지수 ³⁾	-14.5	-22.3	-20.5	-19.9	-19.5	-23.8	-26.2	-23.7	-20.9	-17.4	-15.6
산업생산 증가율 ⁴⁾ (%)	3.1	-2.4	-0.5	-0.5	-0.5	0.1	-0.2	0.2	0.7	-1.0	1.0
실업률 ⁵⁾ (%)	10.2	11.4	10.6	10.9	11.3	11.5	11.8	12.0	12.4	12.0	12.0
소비자물가 상승률 ⁶⁾ (%)	2.7	2.5	2.9	2.7	2.5	2.5	2.3	1.8	1.4	1.6	1.3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계절조정 2010=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5) 계절조정.

6)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Eurostat.

〈고용과 물가〉

■ 2013년 2/4분기 유럽 지역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음.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로지역 주요국의 2013년 2/4분기 실업률은 1/4분기와 동일한 8.0%를 기록하였음.
- 반면 북유럽의 경우 6.9%로 전분기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남유럽 실업률은 스페인의 재정긴축 등으로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20.8%를 기록하였고 동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0.8%를 기록함.

■ 2/4분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북유럽을 제외한 동유럽과 남유럽, 주요국에서 하락하였음.

-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분기대비 0.2%p 하락한 1.7%를 기록함.
- 동유럽과 남유럽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대비 0.6%p, 0.4%p 하락한 2.1%, 0.9%를 나타냈으며 북유럽의 경우 0.1%p 상승한 1.3%를 기록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2년 4/4	7.9	6.7	10.4	20.2	2.1	1.9	3.9	2.1
2013년 1/4	8.0	6.7	10.7	20.6	1.9	1.2	2.7	1.3
2013년 2/4	8.0	6.9	10.8	20.8	1.7	1.3	2.1	0.9

주: 1)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6) 실업률의 경우, 영국과 노르웨이의 2013년 6월 실업률은 반영되지 않음.

자료: Eurostat.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독일 GDP	3.3	0.7	0.1	0.7	-0.1	0.2	-0.5	0.0	0.7
민간소비	2.3	0.8	0.1	0.0	0.0	0.3	0.1	0.2	0.5
고정자본투자	6.9	-2.1	0.6	-0.4	-1.9	0.1	-0.6	-2.1	1.9
수출	8.0	3.2	0.3	1.7	1.4	0.5	-1.6	-0.7	2.2
수입	7.4	1.4	0.2	0.1	0.7	0.1	-0.9	-0.4	2.0
프랑스 GDP	2.0	0.0	0.2	0.0	-0.3	0.2	-0.2	-0.2	0.5
민간소비	0.6	-0.3	-0.3	0.3	-0.5	0.1	0.1	-0.1	0.4
고정자본투자	2.9	-1.2	1.1	-1.3	-0.3	-0.5	-0.8	-1.0	-0.5
수출	5.4	2.4	2.0	0.4	0.4	0.2	-0.7	-0.5	2.0
수입	5.1	-1.1	-1.6	0.8	0.3	-0.1	-1.2	0.1	1.9
이탈리아 GDP	0.4	-2.4	-0.7	-1.0	-0.6	-0.3	-0.9	-0.6	-0.3
민간소비	0.1	-4.2	-1.0	-1.9	-0.6	-1.4	-1.0	-0.5	-0.4
고정자본투자	-1.8	-8.0	-2.1	-3.7	-1.5	-1.1	-1.8	-2.9	-0.3
수출	5.9	2.3	0.8	0.0	0.5	1.1	0.1	-2.1	1.2
수입	0.5	-7.7	-2.5	-3.3	-0.6	-1.9	-1.1	-1.4	-0.3
스페인 GDP	0.1	-1.6	-0.4	-0.4	-0.5	-0.4	-0.8	-0.4	-0.1
민간소비	-1.2	-2.8	-1.2	0.2	-1.1	-0.7	-2.0	-0.5	0.0
고정자본투자	-5.4	-7.0	-2.9	-1.7	-3.3	0.2	-3.0	-1.5	-2.1
수출	7.6	2.1	-0.4	-3.1	0.6	6.5	0.6	-3.8	6.0
수입	-0.1	-5.7	-3.7	-3.3	-2.2	4.6	-2.6	-4.5	5.9
영국 GDP	1.1	0.2	-0.1	0.0	-0.5	0.7	-0.2	0.3	0.7
민간소비	-0.4	1.1	0.6	0.1	0.6	0.2	0.4	0.5	0.3
고정자본투자	-2.4	0.5	-1.2	4.1	-2.1	-1.6	-4.9	0.2	1.7
수출	4.5	0.9	4.7	-1.7	-0.6	1.9	-1.9	-0.1	3.6
수입	0.3	2.8	1.1	0.4	1.6	0.6	-1.0	-2.0	2.5

자료: Eurostat

다. 일본경제

2013년 2/4분기 일본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동향〉

■ 2013년 2/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정부지출과 공공투자 확대에도 민간소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택투자가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0.1%p 감소한 0.9% 증가에 그침.

- 국채금리 상승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며 소비심리가 지속되지 못하여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7% 증가함.
- 주택투자는 0.3%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1.3% 증가함.
- 공공투자는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으로 1/4분기보다 1.6%p 확대된 3.0% 증가함.
- 수출은 엔저 지속⁷⁾으로 전분기대비 3.0% 늘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 증가율은 민간소비 개선으로 전분기대비 0.5%p 확대된 1.5%를 기록하였음.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증가율,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0.6	2.0	0.4 (0.6)	1.2 (6.0)	-0.3 (-1.0)	-0.9 (-3.8)	0.3 (-0.4)	1.0 (3.8)	0.9 (2.6)
민간소비	0.4	2.3	0.6	0.9	0.1	-0.4	0.5	0.8	0.7
설비투자	5.5	3.0	-0.9	-1.5	2.1	1.6	3.6	1.9	1.3
주택투자	3.3	2.0	8.3	-2.3	-0.7	-3.2	-1.2	0.0	-0.3
정부지출	1.4	2.4	0.3	1.6	0.1	0.4	0.6	0.0	0.7
공공투자	-7.5	12.5	-2.1	7.7	4.8	3.4	3.2	1.4	3.0
수출	-0.4	-0.1	-2.7	2.7	-0.2	-4.5	-2.7	4.0	3.0
수입	5.9	5.4	1.9	2.0	1.3	0.0	-2.0	1.0	1.5

주: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3. 8).

7) 엔/달러 환율: 2012년 4/4분기 83.0엔 → 2013년 1/4분기 2013년 92.8엔 → 2013년 2/4분기 99.0엔

〈생산 및 내수부문〉

■ 광공업 생산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엔화 약세, 수출 회복세와 내수경기의 완만한 개선으로 업무용 기계, 전자부품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됨.

■ 2/4분기 소매판매는 고용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로 개선되었음.

- 2/4분기 소매판매는 1.1% 증가하였으나 6월 발표된 정부 성장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실망감⁸⁾과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시사, 7월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소비자태도지수가 하락하면서 1.7% 감소함.
- 2/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전분기대비 1.5p 상승한 44.8을 기록하였다가 미국의 출구전략 관련 불확실성과 2014년 소비세 인상 가능성으로 7월과 8월 하락세를 보임.

■ 2/4분기 투자는 적극적인 내수부양책과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세로 확대됨.

- 주택착공호수는 주택경기 회복세로 2/4분기 11.9%, 7월 12.4% 증가하며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
 - 실업률 감소, 산업생산 증가, 가계소비 회복 등 경제지표 회복세로 주택가격도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주택 구매가 증가하고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⁹⁾
- 광공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2/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6.8% 늘어남.

8) 2013년 6월 5일 아베 총리는 향후 10년 내 1인당 GNI 150만 엔 증가, 3년 내 민간투자 연 70조 엔 달성, 2020까지 인프라 수출 연 30조 엔 및 외국인 직접투자 연 35조 엔 달성 등 성장전략을 제시함. 이에 대해 JP Morgan은 “의미 없는 숫자만 나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안은 부재”라고 평가함. 이러한 실망감으로 6월 5일 니케이 지수는 3.8% 하락하고 엔/달러 환율은 95엔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됨.

9) Financial Times(2013.9.1), “Abenomics Fuels Japanese housing growth”.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8	0.6	0.4	0.8	-2.2	-3.2	-1.9	0.6	1.5	3.4	-0.7
소매판매 증가율 ²⁾ (%)	-1.0	1.8	0.8	1.0	0.3	-0.9	-0.2	0.6	1.1	-1.7	0.9
소비자태도지수 ³⁾	37.8	40.0	38.5	39.5	40.6	40.5	39.3	43.3	44.8	43.6	43.0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2.6	5.8	-4.5	3.7	6.2	-1.1	15.0	5.1	11.9	12.4	8.8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7.8	-4.6	0.2	1.5	-2.6	-1.3	-0.8	0.0	6.8	0.0	-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고용과 물가〉

■ 2013년 2/4분기 실업률은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 여건이 호전됨.

- 2/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4.0%를 기록하였으며 7월 광공업생산이 증가하면서 3%대로 낮아짐.
- 유효구인배율은 2/4분기 0.90, 7월 0.94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 여건이 회복됨을 시사함.

■ 소비자물가는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의 높은 오름세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음.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하락하며 2012년 3/4분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7월 에너지 등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0.7% 상승함.¹⁰⁾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2/4분기와 7월 각각 -0.4%, -0.1%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둔화됨.

10) 광열·수도(전년동기대비 6.4%), 교통·통신(2.6%)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료를 모두 폐쇄하면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4.6	4.4	4.5	4.5	4.4	4.3	4.2	4.2	4.0	3.8	4.1
유효구인배율(배) ¹⁾	0.65	0.80	0.71	0.75	0.80	0.81	0.82	0.85	0.90	0.94	0.95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0.3	0.0	-0.3	0.3	0.2	-0.4	-0.2	-0.6	-0.3	0.7	0.9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³⁾ (%)	-1.0	-0.6	-1.1	-0.6	-0.5	-0.6	-0.5	-0.8	-0.4	-0.1	-0.1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계절조정, 전분기(월)대비 증감.

3)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국토교통성.

라. 중국경제

2013년 2/4분기 중국경제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여 성장 폭이 둔화되었음.

〈최근 동향〉

■ 2013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분기 대비 0.2%p 하락한 7.5%를 기록함.

- 2/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20.4%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증가세가 둔화됨.
- 2/4분기 수출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 확대, 홍콩에서의 투기성자금 유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4.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미국 경기회복세로 7월과 8월 각각 5.1%, 7.2% 늘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4분기 수입 증가율은 5.3%를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 각각 10.9%, 7.0%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질 GDP(%) ¹⁾	9.3	7.8	1.8 (8.9)	1.6 (8.1)	1.9 (7.6)	2.1 (7.4)	2.0 (7.9)	1.6 (7.7)	1.7 (7.5)	-	-
고정자산투자 ²⁾ (%)	23.8	20.6	23.8	20.9	20.4	20.5	20.6	20.9	20.4	20.1	20.3
수출 증가율(%)	20.7	7.9	14.4	8.9	10.5	4.5	9.5	18.9	4.1 ³⁾	5.1	7.2
수입 증가율(%)	25.3	4.3	20.9	9.9	6.5	1.5	2.8	9.6	5.3	10.9	7.0

주: 1) 전기(월)대비,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5월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선진국에 대한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외환관리국이 홍콩에서의 투기성자금 유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대홍콩 수출 증가율이 대폭 하락하였기 때문임.

* 대홍콩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3월 92.9% → 4월 57.2% → 5월 7.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내수부문〉

■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12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위축되었음.

○ 2013년 2/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5%p 확대된 13.0%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어 13.2%, 13.4%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되었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99.9를 기록하여 전분기보다 5.2p 하락하였음.

○ 2/4분기 기업가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5.4p 하락한 117.0을 기록하였음.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7.1	14.5	17.5	15.0	13.9	13.5	14.9	12.5	13.0	13.2	13.4
소비자신뢰지수	103.8	102.4	99.3	103.0	102.2	99.5	105.0	105.1	99.9	-	-
기업가신뢰지수 ²⁾	130.6	120.3	120.9	123.0	121.2	116.5	120.4	122.4	117.0	-	-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생산부문〉

■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 이후 확대되고 있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하락세를 보임.

○ 2013년 2/4분기 산업생산은 정부지출 축소에 따른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기업재고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0.3%p 감소한 9.1%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확대되면서 7월과 8월 각각 9.7%, 10.4%를 기록하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2/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¹¹⁾는 전분기와 동일한 50.5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50.3, 8월 51.0을 나타냄.

11)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13.8	10.0	12.8	11.7	9.5	9.1	10.0	9.4	9.1	9.7	10.4
구매자관리지수 ²⁾	51.3	50.8	49.9	51.5	51.3	49.7	50.5	50.5	50.5	50.3	51.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PMI, 기준=50.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소비자물가는 2012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소매판매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 확대되면서 7월 이후 소폭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는 하락세가 둔화됨.

○ 2/4분기 소비자물가는 1/4분기와 동일한 2.4% 상승하였으며 7월과 8월 각각 2.7%, 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세를 보임.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 -2.7%, 7월 -2.3%, 8월 -1.6%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음.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구분	2011	2012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2.6	4.6	3.8	2.9	1.9	2.1	2.4	2.4	2.7	2.6
생산자물가 상승률(%)	6.1	-1.7	3.1	0.1	-1.4	-3.3	-2.3	-1.7	-2.7	-2.3	-1.6

주: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3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정부의 추경 조기집행과 수출 확대에 의한 회복세를 보임.

■ 2013년 2/4분기 국내경제는 설비투자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건설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0.8%p 증가한 2.3% 성장하였음.

- 민간소비는 전세값 상승, 가계부채 확대,¹²⁾ 비소비지출 증가¹³⁾ 등에도 물가 안정세 지속 및 소득증가로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1.8% 증가함.
- 건설투자는 기저효과와 정부의 추경 조기 집행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2012년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수부진, 과잉설비 등으로 2013년 2/4분기 4.6% 감소하였음.
- 재화수출은 6.0% 증가하였으며 재화수입도 전분기대비 3.6%p 확대된 5.1% 늘어남.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1		2012					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3.4 (0.4)	3.7	2.8 (0.8)	2.4 (0.3)	1.6 (0.0)	1.5 (0.3)	2.0	1.5 (0.8)	2.3 (1.1)
- 민간소비	1.2	2.4	1.3	1.0	1.7	2.7	1.7	1.5	1.8
- 설비투자	-3.6	3.6	8.8	-3.5	-6.9	-5.2	-1.9	-11.9	-4.6
- 건설투자	-1.7	-4.7	-0.4	-3.1	-0.3	-4.2	-2.2	2.4	7.2
- 재화수출 ³⁾	3.2	9.9	4.7	2.4	3.2	4.7	3.8	4.5	6.0
- 재화수입 ⁴⁾	3.4	8.6	4.4	-0.1	0.3	1.7	1.5	1.5	5.1

주: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4) 2011년 수치는 확정치, 2012년과 2013년 1/4분기, 2/4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2) 가계신용 잔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3년 1/4분기 5.1% → 2/4분기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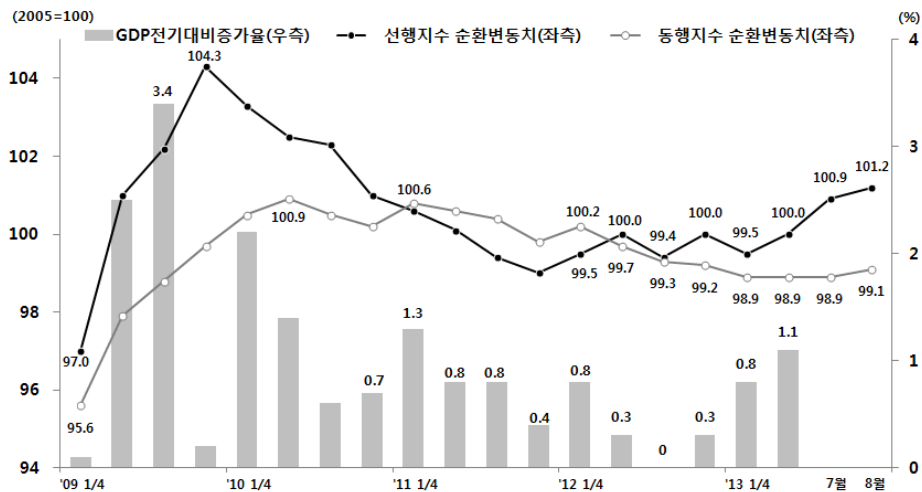
13) 비소비지출에는 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 등이 포함됨.

비소비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2년 1/4분기 4.1% → 2/4분기 0.8% → 3/4분기 4.4% → 4/4분기 2.3% → 2013년 1/4분기 0.1% → 2/4분기 3.0%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치(100.0)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2/4분기와 7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4분기와 같은 수준인 98.9를 유지하다 8월 0.2p 상승한 99.1을 기록함.
- 2/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00.0을 기록하였으며 7월과 8월 100.9, 101.2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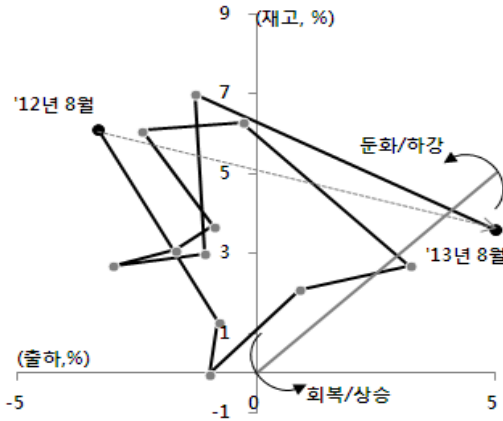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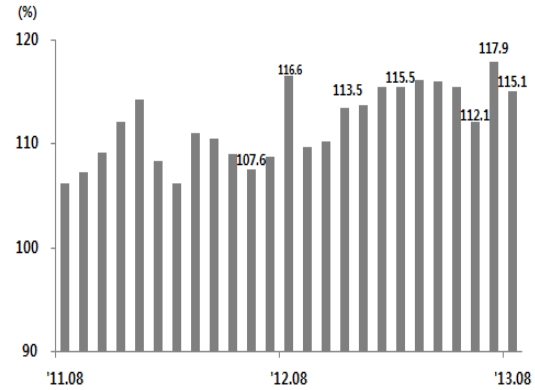
주: 2013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재고·출하순환¹⁴⁾의 경우 2013년 8월 제조업 출하는 전월 1.3% 감소에서 5.0%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재고 증가폭은 7월 7.0%에서 3.6%로 감소하였음.

-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15.1%로 전월대비 2.8%p 하락하였음.

14) 2013년 6~8월의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¹⁾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4분기 소매판매의 경우 내구재 판매 증가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1.1% 증가하였으며 7월 1.0%, 8월 2.5% 늘어났으나, 전월대비 증가율은 7월 1.2%, 8월 0.4%로 나타나 회복세가 미약함.

○ 내구재 판매는 2013년 2/4분기 2.3% 증가하였으나 7월 1.2% 늘어나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8월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전월대비 0.1%p 증가한 1.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 8월 자동차업계 파업의 영향으로 내구재 판매가 급감하여 나타난 기저효과이며, 전월대비 판매 증가율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2/4분기 0.9%, 7월 -0.1%로 둔화세를 보이다 8월 하계 휴가와 기저효과 등으로 5.9% 증가하였음.

○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2/4분기 0.7%, 7월 1.3% 증가하였으며 8월 하계 휴가로 차량연료 판매가 증가하면서 2.0% 늘어났음.

〈표 21〉 소비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¹⁾	7월 ¹⁾	8월 ¹⁾
소매판매	2.8	1.4	2.6	2.5	2.3	0.2	1.1	1.0	2.5
- 내구재	4.4	2.9	6.6	7.5	5.3	1.2	2.3	1.2	1.3
* 승용차	-5.2	1.5	-1.8	15.5	2.4	4.0	2.1	11.5	24.0
- 준내구재	-0.3	-1.0	-3.5	0.3	-1.1	1.8	0.9	-0.1	5.9
- 비내구재	3.3	1.6	3.0	1.0	2.3	-1.0	0.7	1.3	2.0

주: 1)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전년동기대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감소세가 지속되다 8월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국내기계수주도 2/4분기 이후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함.

○ 설비투자는 2/4분기 10.0% 감소하였고 7월에도 8.3% 줄었으나 8월 산업생산 증가와 기저효과 등으로 4.6% 증가로 전환하였음.

○ 2/4분기 국내기계수주는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세와 항공기 도입 확대, 기저효과로 8.7% 증가하였으며, 7월 5.7%, 8월 6.4% 증가하였음.

〈표 22〉 투자 관련 지표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¹⁾	7월 ¹⁾	8월 ¹⁾
설비투자지수	10.7	-2.7	-8.2	-6.9	-2.0	-15.4	-10.0	-8.3	4.6
- 기계류	12.8	-2.6	-7.8	-10.3	-2.2	-20.8	-13.1	-11.8	-4.5
- 운송장비	2.0	-3.1	-10.1	7.2	-1.1	10.4	3.4	6.0	56.4
국내기계수주 ²⁾	-1.1	-19.8	-10.4	-21.5	-13.4	-10.9	8.7	5.7	6.4
건설투자	-0.4	-3.1	-0.3	-4.2	-2.2	2.4	7.2	-	-
- 건설기성 ³⁾	-4.9	-9.7	-2.3	-5.6	-5.8	5.2	15.6	11.6	16.8
건축	-3.2	-12.5	-6.2	-7.6	-7.6	4.9	20.7	9.7	28.6
토목	-7.1	-6.1	3.2	-3.4	-3.5	5.5	9.7	14.3	2.5
- 국내건설수주	33.3	-0.7	-13.6	-33.1	-8.9	-41.2	-28.8	-14.6	-11.5
건축	27.4	-7.0	-7.1	-27.4	-8.7	-33.6	-28.3	11.7	-22.6
토목	42.1	12.5	-26.3	-43.7	-9.3	-51.3	-29.7	-55.0	30.1

주: 1) 잠정치.

2) 선박제외.

3) 2013년 3월 수치도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3년 2/4분기 건설투자는 국내건설수주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기성의 회복세로 7.2% 증가하였음.

○ 건설기성은 2/4분기 건축과 토목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 2/4분기 건설기성은 15.6%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11.6%, 16.8% 늘어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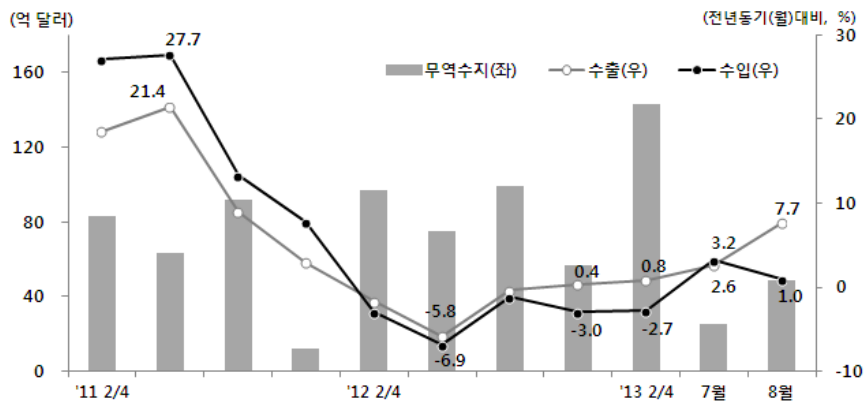
〈대외거래〉

■ 2013년 8월 수출¹⁵⁾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463억 7,800만 달러, 수입¹⁵⁾은 1.0% 증가한 415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는 48억 5,200만 달러 흑자임.

○ 수출은 중화학 공업품(11.9%)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경공업 제품(-8.2%)은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음.

○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자재(-3.7%)가 감소하였으며 소비재(7.1%)와 자본재(9.8%)는 증가하였음.

〈그림 4〉 대외거래지표 추이



자료: 관세청(통관 기준).

15) 수출과 수입은 2013년 8월까지 확정치임.

〈표 23〉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4.2	1.8	4.2	0.6	4.6	1.0	-3.2	-5.5	-4.2
	원료 및 연료	23.4	-6.8	2.8	9.2	6.2	3.3	-9.1	-8.4	-6.7
	경공업 제품	10.2	3.2	3.2	-0.2	3.9	-3.4	-1.3	-3.5	-8.2
	중화학 공업품	-0.2	-2.1	-7.2	-1.9	-2.9	0.4	2.4	5.0	11.9
	전체	3.0	-1.7	-5.2	-0.4	-1.3	0.5	0.8	2.6	7.7
	금액(억 달러)	1,348	1,401	1,331	1,398	5,479	1,355	1,412	458	464
수입	소비재	6.3	-1.8	-2.3	6.4	2.0	5.3	7.1	10.7	7.1
	원자재	8.9	-0.8	-7.0	-0.8	0.1	-3.4	-6.7	1.3	-3.7
	자본재	4.8	-6.9	-10.1	-3.8	-4.2	-5.0	3.1	4.4	9.8
	전체	7.6	-2.6	-7.4	-1.1	-0.9	-3.0	-2.7	3.2	1.0
	금액(억 달러)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1,269	433	415
무역수지		11.8	97.0	74.7	99.4	282.9	57.8	142.4	25.4	48.5

주: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지역별 수출입의 경우, 2013년 8월 미국(+17.9%)과 중국(+12.8%)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EU(22.6%)와 동남아(5.7%), 중국(0.1%)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음.

○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중국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24〉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8월	증감률	1~8월	증감률	8월	증감률	1~8월	증감률
미국	49.8	17.9	414.6	4.7	32.2	-0.4	276.6	-8.4
일본	27.6	-13.3	227.0	-12.2	48.7	-4.6	404.8	-6.0
EU	39.4	-8.9	326.8	-3.3	49.1	22.6	370.0	11.2
동남아	103.0	6.6	837.2	2.2	57.4	5.7	458.8	0.8
중동	24.6	-5.0	217.1	-11.5	95.8	-3.5	832.8	-2.3
중국	124.8	12.8	948.8	10.8	65.5	0.1	546.4	1.8
중남미	30.0	0.4	248.3	-2.2	15.7	-6.1	126.2	-3.9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산업생산〉

■ 2013년 2/4분기 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1.5%p 증가한 1.7% 증가하였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1.4%, 2.8%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광공업생산은 2/4분기 제조업(-0.8%), 자동차(-2.2%), ICT(0.2%) 등 전 부문에서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0.7% 감소하였으나 8월 자동차 생산이 기저효과로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함.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회복세를 보여 1.7% 증가하였으나 7월과 8월 소폭 둔화됨.

〈표 25〉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¹⁾	7월 ¹⁾	8월 ¹⁾
전산업생산 ²⁾	2.6	0.6	0.7	0.1	1.0	0.2	1.7	1.4	2.8
광공업	3.6	1.1	-1.0	-0.1	0.8	-1.7	-0.7	0.9	3.3
- 제조업	3.8	1.0	-1.1	-0.2	0.8	-1.8	-0.8	0.9	3.4
- 자동차	10.7	3.2	-11.6	-2.3	-0.1	-3.8	-2.2	-1.3	34.0
- ICT	4.1	-2.3	-5.5	5.3	0.4	-1.5	0.2	9.3	7.9
서비스업	2.6	1.5	1.5	0.8	1.6	0.8	1.7	0.6	1.3
- 도매 및 소매업	1.9	0.1	0.5	0.4	0.7	-0.6	0.5	-0.7	0.6
- 운수업	0.8	0.8	1.2	2.1	1.2	2.0	2.2	-1.5	0.2
- 숙박 및 음식점업	-2.0	-3.3	1.1	-0.6	-1.2	-0.4	-0.3	-1.9	0.9
- 금융 및 보험업	5.9	1.6	1.8	2.2	2.8	1.4	2.8	1.0	-1.0
- 부동산 및 임대업	-6.0	-3.6	-6.0	-1.4	-4.3	-1.1	5.7	0.6	-1.4

주: 1) 잠정치.

2)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물가 및 고용〉

2013년 2/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추세를 지속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실질소비지출은 감소하였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3년 2/4분기 1.1%, 7월 1.4%, 8월 1.3%를 기록하며 2012년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 이는 원화강세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업제품가격 상승률(0.1%)이 1/4분기대비 0.9%p 하락하였고,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1.2%)하는 등 상품 가격 상승률(0.6%)이 1/4분기(1.5%)보다 둔화되었기 때문임.

- 반면 2/4분기 집세(2.7%), 개인서비스(1.3%) 등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4%를 기록함.

■ 2013년 2/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보다 3.5p 상승한 111.3을 기록하였으며 7월 112.5로 상승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임.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기대지수 ¹⁾	94.8	103.8	94.4	97.1	97.5	107.8	111.3	112.5	110.2
소비자물가 상승률	3.0	2.4	1.6	1.7	2.2	1.4	1.1	1.4	1.3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4.1	4.0	2.2	2.2	3.0	1.5	0.6	1.6	1.3
- 농축수산물	2.3	5.8	1.3	3.4	3.1	1.6	-1.2	0.4	2.1
- 공업제품	4.3	3.5	1.8	1.7	2.9	1.0	0.1	1.4	0.7
- 전기·수도·가스	5.7	4.6	6.1	3.6	5.0	4.9	5.8	3.8	3.4
서비스	2.2	1.3	1.1	1.4	1.5	1.3	1.4	1.3	1.3
- 집세	5.0	4.5	4.0	3.4	4.1	3.0	2.7	2.6	2.6
- 공공서비스	-0.2	0.7	0.6	1.1	0.5	1.0	0.8	0.6	0.5
- 개인서비스	2.4	0.6	0.6	0.7	1.1	1.0	1.3	1.2	1.2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4분기 이후 8월까지 고용지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음.

- 총취업자 수는 2013년 2/4분기 1.3% , 7월 1.5%, 8월 1.7% 늘어나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추정 일자리 사업 효과¹⁶⁾가 7월 이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청년 취업자 수는 2/4분기 2.3%, 7월 2.5%, 8월 1.5% 줄어들어 2012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3년 2/4분기 고용률은 60.2%, 7월 60.4%, 8월 60.0%를 기록하며 2012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음.
- 청년실업률은 2013년 2/4분기 7.9%를 나타냈으며 7월 8.3%, 8월 7.6%를 기록하였음.

■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확대되었음.

- 2013년 2/4분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하였으나, 7월과 8월에는 각각 0.2%, 1.6% 증가하였음.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2/4분기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7월 1.3%, 8월 0.2% 늘어났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2/4분기에 이어 7월과 8월에도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증가폭은 2012년에 비해 둔화되었음.
- 2013년 2/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하였으며 7월에는 0.6% 증가하였으나 8월 0.4% 감소하였음.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취업자 수는 2/4분기 3.1% 증가하였으며 7월 3.7%, 8월 4.7% 늘어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16)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재정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7월부터 채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증가폭이 7월 이후 확대되었음(공공행정(전년동월비, 만 명): (2013. 5)0.9 → (6)-0.4 → (7)1.6 → (8)1.6).(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 9)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2.0	1.8	2.1	1.4	1.8	1.1	1.3	1.5	1.7
- 청년취업자	0.0	-0.2	-1.4	-2.1	-0.9	-3.0	-2.3	-2.5	-1.5
고용률	57.8	60.2	60.0	59.4	59.4	57.7	60.2	60.4	60.0
실업률	3.8	3.3	3.0	2.8	3.2	3.6	3.1	3.1	3.0
- 청년실업률	8.2	8.1	6.8	7.0	7.5	8.4	7.9	8.3	7.6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2.6	-1.4	0.1	-0.2	-0.9	-0.7	-1.6	0.2	1.6
광공업	-2.7	-1.6	2.1	3.4	0.3	3.0	3.0	1.3	0.2
- 제조업	-2.5	-1.6	2.1	3.5	0.3	3.0	3.0	1.3	0.1
SOC 및 기타서비스업	3.4	2.8	2.2	1.1	2.4	0.8	1.2	1.6	2.1
- 건설업	4.8	1.9	0.9	-2.2	1.3	-3.7	-0.4	0.6	-0.4
- 도소매음식숙박	1.8	2.6	2.1	1.1	1.9	-0.7	-0.2	0.3	0.7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4.5	2.0	-0.4	-0.4	1.4	-0.4	1.7	2.0	2.6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7	3.4	3.5	2.3	3.2	3.1	3.1	3.7	4.7

주: 1)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3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4분기 대비 0.8%p 확대된 2.5%를 기록하였으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0.7% 증가하는데 그쳤음.

○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04만 1,000원으로 2.5% 증가하였음.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28만 7,000원으로 1/4분기 대비 0.4%p 증가한 2.1%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88만 4,000원으로 6.1%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 3,000원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쳤으며,¹⁷⁾ 실질소

17) 2/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1%로 소득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는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1/4분기 1.5%에서 2/4분기 4.1%로 2.6%p 상승하였기 때문임.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확대된 이유는 연금(4.5%), 사회보장(5.3%)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2/4분기 가구간 이전(7.5%)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비지출은 0.4% 줄어들어 흑자액은 소폭 증가하였음.

- 평균소비성향이 73.1%로 전년동기보다 1.0%p 하락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6.9%로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함.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p)

구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2/4
가구당 월평균 소득(만 원)	412.4	394.2	414.2	409.3	407.7	419.3	404.1
- 증가율	6.9	6.2	6.3	5.4	6.1	1.7	2.5
- 실질소득 증가율	3.8	3.7	4.6	3.6	3.8	0.3	1.3
처분가능소득(만 원)	333.3	321.9	335.0	336.1	331.7	339.1	328.7
- 증가율	6.8	6.8	6.3	5.7	6.4	1.7	2.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만 원)	256.8	238.6	246.7	241.2	245.7	254.3	240.3
- 증가율	5.3	3.6	1.0	1.4	2.7	-1.0	0.7
-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2.2	1.1	-0.7	0.3	0.5	-2.4	-0.4
흑자액(만 원)	76.5	83.3	88.3	94.8	86.0	84.8	88.4
- 증가율	12.2	17.5	24.8	18.5	18.4	10.8	6.1
평균소비성향 ¹⁾	77.0	74.1	73.6	71.8	74.1	75.0	73.1
흑자율 ²⁾	23.0	25.9	26.4	28.2	25.9	25.0	26.9

주: 1)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

2) 흑자율 =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2013년 3/4분기 중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됨.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7월 평균 2.91%, 8월 평균 2.94%로 상승하였고 9월에는 3.00%에 근접하였으나, 미연준의 양적완화 지속 결정 이후에는 2.83%까지 하락함.

■ 2013년 3/4분기 중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 수준에서 유지하였음.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5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집행 효과의 본격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함.

■ 2013년 3/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와 안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분기대비 26bp 상승한 2.92%를 기록하였음.

- 7월 국고채 금리는 미연준의 출구전략 조기시행 우려 완화로 하락하다가 국내외 경제 지표 개선,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완화로 완만하게 상승하여 월 평균 2.91%를 기록함.
- 8월 국고채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재부각,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며 월 평균 2.94% 수준을 유지함.
- 9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미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2.99%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양적완화 유지 결정과 외국인 현물 순매수로 다시 하락하여 월 평균 2.90%를 기록함.

■ 2013년 3/4분기 CD(91일) 평균 금리는 2.67%로 하락하였으며 장단기 금리차이가 전분기 대비 확대되었고 신용등급 간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CD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 발행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2/4분기 평균 2.74%에서 3/4분기 평균 2.67%로 하락하여 전분기대비 7bp 낮아짐.

- ‘국고채(3년) - CD(91일)’간 스프레드는 2/4분기 평균 -8bp에서 3/4분기 평균 25bp로 확대됨.
- 회사채금리가 분기 초 신용경계감 증대 등으로 국고채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신용스프레드가 전분기대비 넓어짐.
- 2/4분기 평균 36bp를 기록한 ‘회사채(3년, AA-) - 국고채(3년)’ 간 스프레드는 3/4분기 평균 42bp를 기록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구분	2012 3/4	2013 1/4	2013 2/4	2013 3/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3.03	2.75	2.50	2.50	0.00	-0.53
CD(91일)	3.22	2.83	2.74	2.67	-0.07	-0.55
국고채(3년)	2.89	2.68	2.66	2.92	0.26	0.03
회사채(3년, AA-)	3.44	3.07	3.02	3.34	0.32	-0.10
스프레드(국고채-CD)	-0.33	-0.15	-0.08	0.25	0.33	0.58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55	0.39	0.36	0.42	0.06	-0.13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환율〉

2013년 3/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11.6원으로 2/4분기 1,122.3원보다 10.7원 하락하였으며, 미연준의 양적완화 지속 결정 이후 원화 강세가 가속화되었음.

-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지속, 양호한 국내 경제, 외국인의 주식매수 등에 힘입어 원화강세를 보임.
- 7월 원/달러 환율은 상품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하락 압력, 미 달러 유동성 축소 기대감에 따른 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평균적으로는 전월대비 하락함.

- 8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 외국인 주식매수 등에 힘입어 하락함.
- 9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연준 양적완화 규모 유지 결정 이후 빠르게 하락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2		2013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원/달러	1,132.9	1,098.7	1,084.8	1,122.3	1,111.6	1,126.1	1,116.4	1,086.0
엔/달러	78.6	80.4	92.4	98.8	99.0	99.6	97.9	99.4
달러/유로	1.251	1.294	1.320	1.306	1.324	1.310	1.332	1.333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Bloomberg.

■ 3/4분기 달러화는 유로존 경기회복세 조짐, 미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지연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 등으로 강세를 보임.

- 7월 달러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시행 발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확대로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미연준의 출구전략 시행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임.
- 8월 달러화는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 유로존 자산매입 증가와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엔화에 대해서는 시리아 사태 여파로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약세를 보임.
- 9월 달러화는 미연준의 출구전략 지연과 독일 총선 전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혼재되면서 유로화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보였고, 엔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비세 인상 시행과 양적완화 도입에 대한 기대 부각으로 강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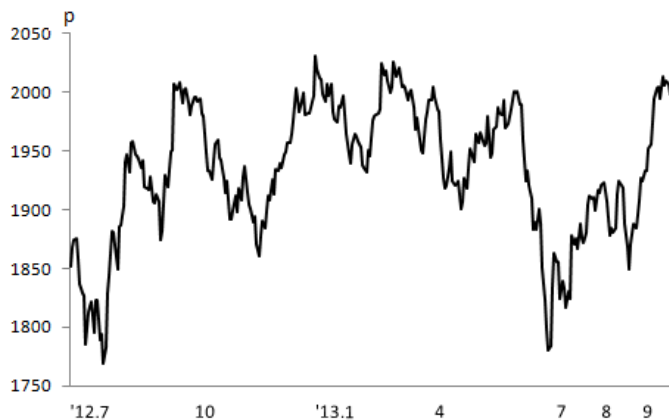
〈주가지수〉

2013년 3/4분기 주가지수는 7월 초 미국의 출구전략 조기시행 우려가 확대되면서 1,800포인트에 다가갔으나, 8월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감 등으로 반등하여 1,900포인트를 넘어섰고, 9월에는 미연준 양적완화 규모 유지 결정 이후 2,000포인트를 넘어섬.

■ 2013년 3/4분기 주가는 미연준의 출구전략 조기시행에 대한 우려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분기 후반에는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 미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결정에 힘입어 전분기 증가보다 148포인트 상승한 2,011.8포인트를 기록함.

- 7월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1,817포인트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미연준의 출구전략 조기시행 및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완화, 양호한 기업실적 발표 등으로 반등하여 종가기준으로 1,914 포인트를 기록함.
- 8월 종합주가지수는 대외 불안요인 등의 영향으로 다시 1,849포인트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국내경제에 대한 신뢰감,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반등하여 전월대비 소폭 상승함(8월 종가 1,926포인트).
- 9월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경제지표 호조, 외국인 매수세 지속, 미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유지 결정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하여 종가기준으로 2,011포인트를 기록함.

〈그림 5〉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자금흐름〉

2013년 2/4분기 비보험 금융권 순수신은 증권부문의 경우 CMA 부진, 자산운용의 경우 MMF 부진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함. 보험권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함.

■ 2013년 2/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전분기 대비 28.7% 감소하였음.

○ 2/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34.2% 감소함.

- 수입보험료는 전분기대비 21.8% 감소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분기대비 7.8% 감소함.

○ 2/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8% 증가함.

- 원수보험료는 전분기대비 2.4% 증가하였고 원수손해액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함.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¹⁾	124,734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
- 생보	97,036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
수입보험료	236,899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
지급보험금	139,863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
- 손보	27,698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
원수보험료	166,153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
원수손해액	138,455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
은행	263,282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9,240
- 일반 ²⁾	173,064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34,417
- 신탁	90,218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25,417
증권 ³⁾	10,078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18,841
자산운용 ⁴⁾	-105,662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14,389
종금 ⁵⁾	-52,656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311

주: 1)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2013년 2/4분기 비보험 금융권의 순수신은 은행권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은행권의 경우 신탁계정 수신은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일반계정 수신 증가로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48.1% 증가함.
 - 정부 재정집행자금 및 금융기관의 단기 투자대기자금 등이 유입되면서 수시입출식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증권사의 경우 대고객 RP 매도, CMA 순수신이 모두 크게 줄어들어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크게 감소함.
- 자산운용의 경우 채권형, 채권혼합형에서는 순수신이 증가하였으나 MMF 순수신은 계절요인(세금납부) 및 단기금리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메리트 약화 등으로 크게 감소하여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46.2% 감소함.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3 1/3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0.1% 감소하고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3.3%로 크게 둔화되면서 1.3% 증가한 41조 8,587억 원을 기록함.

■ FY2013 1/3분기¹⁾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는 일반 저축성보험의 부진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장기보험 성장 둔화, 자동차보험 역성장 등으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면서 1.3% 증가한 41조 8,587억 원에 그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과 단체보험이 증가한 반면 생존보험이 감소하고 생사 혼합보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24조 5,003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부문 증가율 둔화와 자동차보험 역성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에 그친 17조 3,584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생명보험	22,4	87,8	24,5	28,1	31,3	31,3	115,3	24,5
	(5,6)	(5,8)	(16,5)	(35,9)	(32,3)	(39,9)	(31,3)	(-0,1)
손해보험	16,1	61,0	16,8	16,7	18,1	17,0	68,5	17,4
	(21,0)	(16,7)	(19,4)	(17,8)	(8,7)	(5,5)	(12,4)	(3,3)
합계	38,5	148,8	41,3	44,8	49,4	48,3	183,9	41,9
	(11,5)	(10,0)	(17,6)	(28,5)	(22,6)	(25,5)	(23,6)	(1,3)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4)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나. 총자산

FY2013 1/3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 총자산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손해보험 총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분기대비 0.5% 증가한 730조 원을 기록함.

■ FY2013 1/3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수입(원수)보험료 부진으로 일반계정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가지수 하락으로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5% 증가한 730조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의 경우 일반계정자산이 수입보험료 감소로 소폭 증가하고 주식수익률 하락으로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0.1% 감소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이 퇴직연금 부진으로 감소한 반면 일반계정자산이 소폭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160조 원을 기록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생명보험	458.2	458.2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3.5)	(10.0)	(10.3)	(4.7)	(3.5)	(4.0)	(24.4)	(-0.1)
손해보험	129.8	129.8	138.5	146.0	151.8	156.5	156.5	160.3
	(5.3)	(27.0)	(6.7)	(5.4)	(4.0)	(3.1)	(20.5)	(2.5)
합계	588.0	588.0	643.9	675.2	699.6	726.3	726.3	729.8
	(3.9)	(13.3)	(9.5)	(4.8)	(3.6)	(3.8)	(23.5)	(0.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익성

FY2013 1/3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0.4%p 낮아진 2.0%를 기록함.

■ FY2013 1/3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의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모두 악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2.0%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1.6%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2.9%를 기록함.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³⁾	1/4	2/4	3/4	4/4	연간 ³⁾	1/3
생명보험	2.4	8.4	1.9	1.9	1.4	1.4	6.6	1.6
손해보험	3.0	16.3	4.1	3.4	1.8	1.9	11.6	2.9
합계	2.6	10.2	2.4	2.3	1.5	1.5	7.8	2.0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 화재보험 진입으로 FY2012 1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개요〉

■ FY2013 1/3분기²⁾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1% 감소한 24조 5,003억 원을 기록하였음.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하였고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5.3% 증가하였음.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개선된 반면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2013년 2월 이후 생존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0.4% 감소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5.3%의 양호한 증가세를 기록함.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수입보험료 감소로 일반계정자산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주식시장 불안으로 특별계정 자산이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0.1% 줄어듦.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수입보험료 ²⁾	22.4	87.8	24.5	28.1	31.3	31.3	115.3	24.5
	(5.6)	(5.8)	(16.5)	(35.9)	(32.3)	(39.9)	(31.3)	(-0.1)
총자산	458.2	458.2	505.4	529.2	547.8	569.8	569.8	569.5
	(3.5)	(10.0)	(10.3)	(4.7)	(3.5)	(4.0)	(24.4)	(-0.1)

주: 1) 괄호는 증가율이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 연금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3 1/3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사망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변액보험 저성장, 그리고 생존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로 0.4% 감소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2 4/4분기 세제혜택 축소 전 즉시연금 가입 증가 이후 수요 공백 현상이 발생하면서 8.9% 감소하였음.
 - 즉시연금 세제혜택 축소가 포함된 소득세법시행령이 2013년 2월 15일 발효되면서 3월 이후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FY2013 1/3분기 초회보험료는 40% 이상 감소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의 활발한 출시에 힘입어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발효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저금리 환경 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등으로 3.3%의 증가세를 유지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주가지수 하락으로 변액연금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0.4% 증가에 그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FY2012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3월 2,000 포인트를 상회하던 주가지수가 2013년 6월 1,800 포인트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수입보험료 감소세가 확대됨.
 - 반면 변액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FY2013 1/3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체적으로 5.3% 증가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이 마무리 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단체보험은 이례적인 고성장을 기록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생존	보험료	51,654	179,425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증가율	16.1	5.0	42.6	107.5	108.6	88.9	87.6	-8.9
	구성비	23.1	20.4	23.8	31.8	29.1	31.2	29.2	21.7
사망	보험료	72,171	287,112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증가율	0.8	0.0	6.8	6.5	7.6	8.8	7.4	3.3
	구성비	32.2	32.7	31.1	27.1	24.6	25.1	26.7	32.2
생사 혼합	보험료	37,134	122,378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증가율	29.0	16.3	68.5	91.7	79.9	83.3	81.1	3.3
	구성비	16.6	13.9	18.8	19.4	16.9	21.7	19.2	19.4
변액 보험	보험료	53,102	212,937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증가율	0.3	9.7	-1.2	-5.4	1.3	4.1	-0.3	0.4
	구성비	23.7	24.2	21.3	18.4	16.9	17.7	18.4	21.5
개인 계	보험료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증가율	8.2	5.9	20.9	37.5	39.1	39.9	34.6	-0.4
	구성비	95.6	91.3	95.1	96.7	87.5	95.6	93.6	94.8
단체	보험료	9,831	76,508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증가율	-31.0	5.3	-32.0	1.5	-1.8	40.1	-3.1	5.3
	구성비	4.4	8.7	4.9	3.3	12.5	4.4	6.4	5.2
합계	보험료	223,891	878,360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증가율	5.6	5.8	16.5	35.9	32.3	39.9	31.3	-0.1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연금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3)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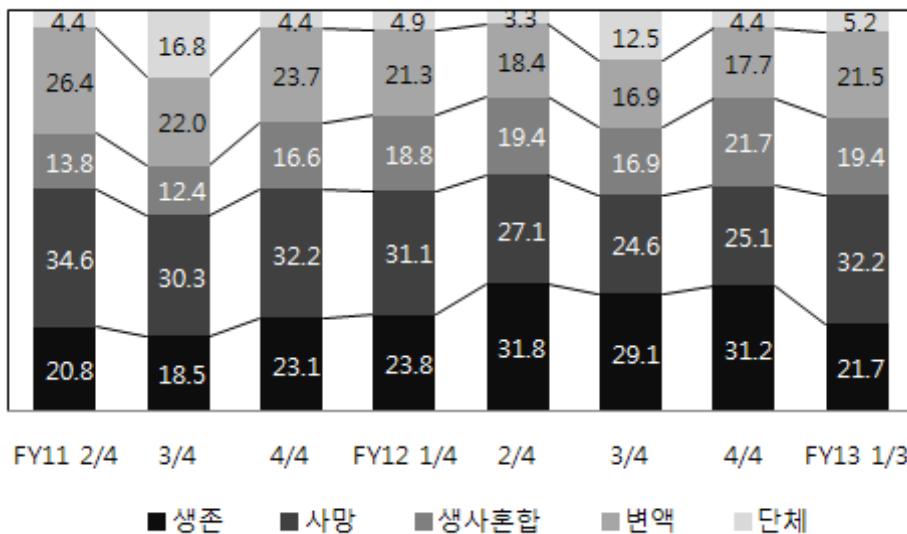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비중이 상승하고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생존보험의 비중은 하락함.

- 사망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1%p 증가한 32.2%로 생존보험 비중을 앞서며 생명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생사혼합보험과 변액보험, 단체보험 비중은 각각 0.6%p, 0.2%p, 0.3%p 상승한 19.4%, 21.5%, 5.2%를 나타냄.
- 생존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1%p 하락한 21.7%를 기록하면서 사망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3 1/3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하락함.

- 상위 3사의 경우 저축성보험 중심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p 확대된 46.8%의 점유율을 나타냄.
-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감소로 인해 0.5%p, 0.6%p 하락한 36.7%, 16.4%로 나타남.

■ FY2013 1/3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31포인트 상승한 0.1062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상위 3개사	50.1	51.8	45.8	50.9	53.0	50.6	50.3	46.8
국내중소형사 ²⁾	30.6	28.4	37.2	33.2	33.2	34.6	33.9	36.7
외국사 ³⁾	19.3	19.8	17.0	15.9	13.8	14.8	15.8	16.4
허핀달지수 ⁴⁾	0.1111	0.1179	0.1031	0.1176	0.1308	0.1272	0.1199	0.1062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중소형사(12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3년 6월 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생존보험의 지급률이 상승한 반면,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단체보험의 지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5%p 낮아진 55.4%로 나타남.

- 생존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0%p 상승한 49.1%로 나타남.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로 각각 0.7%p, 7.2%p 하락한 54.3%, 58.1%를 나타냈으며, 변액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해지환급금 감소 등으로 지급률이 3.3%p 하락한 49.8%를 나타냄.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5.0%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전년동기보다 0.3%p, 하락한 2.5%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보험금 지급률 ¹⁾	56.9	58.9	56.9	48.3	45.8	47.0	49.1	55.4
개인계	53.0	52.6	53.9	45.6	45.7	44.3	47.1	52.9
- 생존	51.2	56.1	44.1	30.1	31.8	29.4	32.8	49.1
- 사망	56.7	53.3	55.0	56.9	54.8	58.5	56.3	54.3
- 생사혼합	39.1	43.3	65.3	44.0	43.8	40.6	47.3	58.1
- 변액	59.3	53.9	53.1	57.5	58.5	54.8	56.0	49.8
단체	143.2	124.6	113.9	127.7	46.2	105.7	78.4	100.7
사업비율	16.7	16.6	15.4	14.0	13.1	13.7	14.0	15.0
해지율 ²⁾	10.2	10.2	2.8	5.4	7.8	10.0	10.0	2.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2)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의 양호한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한 8,497억 원을 기록함.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총수익	보험영업	16,688	60,872	18,563	22,505	22,621	24,951	88,640	18,476
	투자영업	4,894	20,024	5,656	5,600	6,129	5,266	22,651	6,540
	영업외	961	3,664	984	1,000	1,018	1,037	4,039	1,011
	소 계	22,543	84,560	25,204	29,105	29,768	31,254	115,330	26,027
총비용	보험영업	12,397	46,700	14,023	13,958	14,107	15,057	57,144	14,028
	투자영업	348	3,308	1,049	699	1,420	217	3,385	1,494
	영업외	153	738	165	168	181	161	674	205
	소 계	12,898	50,746	15,236	14,825	15,708	15,435	61,203	15,726
수지차	보험영업	4,291	14,172	4,540	8,547	8,514	9,895	31,496	4,448
		(44.6)	(14.8)	(27.0)	(175.3)	(166.0)	(130.6)	(122.2)	(-2.0)
	투자영업	4,546	16,717	4,608	4,901	4,709	5,049	19,266	5,046
		(-4.0)	(-0.1)	(9.6)	(28.2)	(13.6)	(11.1)	(15.2)	(9.5)
	영업외	808	2,926	820	832	837	876	3,365	807
소 계		9,645	33,814	9,968	14,280	14,060	15,819	54,127	10,301
책임준비금전입		8,291	29,452	8,909	13,103	13,146	15,057	50,216	9,142
법인세		325	992	215	252	208	36	711	309
당기순이익		1,029	3,371	844	925	706	726	3,200	850
		(6.6)	(-16.1)	(-22.6)	(78.3)	(-3.6)	(-29.5)	(-5.1)	(0.7)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보험영업이익은 일반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은 외화환산이익 등이 증가하면서 9.5%의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냄.

〈부채 및 자본〉

■ FY2013 1/3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총자본 또한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증가로 7.7%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은 전년동기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총자본 항목 중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8%, 13.1% 증가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3/4	4/4	1/4	2/4	3/4	4/4	1/3
책임준비금	금액	300	309	352	366	379	394	403
	증가율	10.5	10.7	23.1	24.6	26.1	27.6	14.3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7	7	7	9	9	9	7
	증가율	-4.0	14.3	19.2	54.1	34.1	29.6	0.4
기타부채	금액	13	13	14	14	14	15	14
	증가율	11.7	15.6	23.9	13.5	12.7	18.5	-0.4
특별계정부채	금액	82	86	86	90	94	97	96
	증가율	1.5	5.0	4.0	13.5	14.4	12.0	11.7
부채총계	금액	402	415	460	478	496	515	520
	증가율	8.3	9.6	19.0	22.5	23.4	24.1	13.2
자본금	금액	9	9	9	9	9	9	9
	증가율	2.0	1.7	5.7	6.0	7.6	7.6	1.9
자본잉여금	금액	3	3	5	5	6	6	6
	증가율	-9.5	-10.4	76.6	77.6	89.9	89.5	9.8
이익잉여금	금액	18	19	19	20	21	21	22
	증가율	18.9	18.0	15.3	16.9	15.3	12.7	1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2	13	13	17	17	19	14
	증가율	9.4	27.8	23.8	67.6	46.5	48.7	5.2
자본총계	금액	41	43	46	51	52	55	49
	증가율	8.8	13.3	18.3	31.0	27.2	27.1	7.7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443	458	505	529	548	570	570
	증가율	8.4	10.0	18.9	23.2	23.8	24.4	12.7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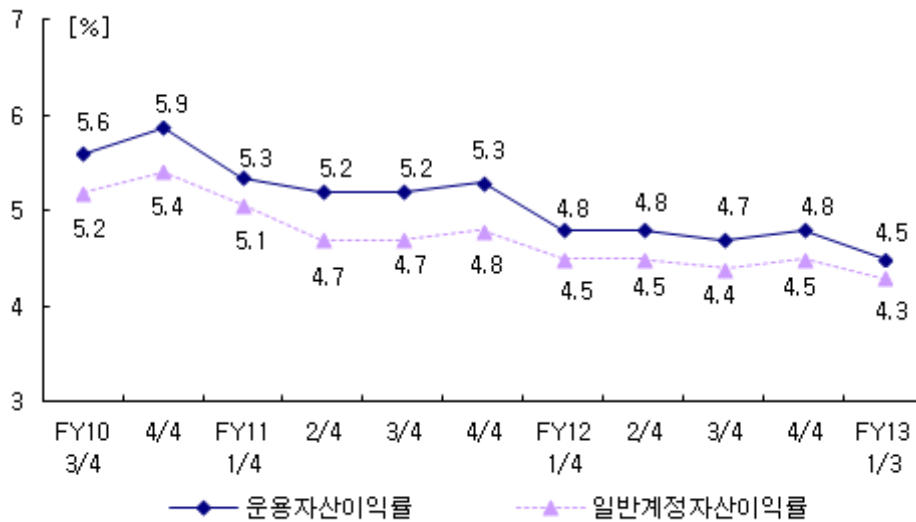
〈자산 운용〉

■ FY2013 1/3분기 운용자산 이익률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저금리와 주식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0.2%p 하락한 4.5%와 4.3%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가장 비중이 큰 매도가능채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5%로 나타났고 주가지수 하락으로 당기손익인식증권 중 주식수익률과 특별계정자산 이익률은 각각 -21.6%와 -7.3%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일반계정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0.2%, 대출채권 17.6%, 현금과 예금 3.1%, 부동산 3.1%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1),2),3)}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구성비 ¹⁾	이익률 ²⁾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5	100.0	4.5	100.0	4.4	100.0	4.5	100.0	4.3
운용자산 계	93.3	4.8	93.7	4.8	93.9	4.7	94.1	4.8	93.9	4.5
현금과예금	3.9	3.6	3.9	3.5	4.4	3.1	3.6	3.5	3.1	3.3
유가증권	68.1	4.4	69.1	4.4	69.0	4.3	70.5	4.3	70.2	4.2
○당기손익인식증권 ³⁾	2.2	2.4	2.5	5.2	2.4	5.0	3.2	4.5	2.8	-0.3
- 주식	0.1	-31.4	0.1	-2.2	0.1	-1.1	0.1	1.4	0.1	-21.6
- 채권 등	0.8	4.5	0.8	8.3	0.6	7.9	0.7	7.4	0.6	0.0
- 수익증권	1.3	4.2	1.6	4.1	1.7	4.0	2.4	3.5	2.0	0.6
○매도가능증권	47.6	4.3	49.3	4.2	49.4	4.1	51.5	4.1	50.5	4.2
- 주식	4.7	0.3	4.8	-0.1	5.1	-0.4	5.0	0.3	4.6	0.9
- 채권 등	40.3	4.8	41.9	4.7	41.5	4.7	43.5	4.6	43.0	4.5
- 수익증권	2.6	2.5	2.6	3.4	2.8	3.4	3.0	3.5	2.9	4.3
○만기보유증권	17.0	5.2	15.9	5.2	15.8	5.1	14.2	5.3	15.3	4.7
- 채권 등	17.0	5.2	15.9	5.2	15.8	5.1	14.2	5.3	15.3	4.7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1.4	4.2	1.4	2.5	1.4	2.0	1.5	2.4	1.7	7.0
대출채권	18.1	6.9	17.6	7.0	17.4	6.9	17.0	6.9	17.6	6.4
부동산	3.3	3.6	3.2	3.8	3.1	3.8	3.0	3.8	3.1	3.6
비운용자산	6.7	-0.9	6.3	0.0	6.1	0.2	5.9	0.1	6.1	0.2
총자산	100.0	2.8	100.0	4.3	100.0	4.2	100.0	4.3	100.0	2.3
일반계정	83.2	4.5	83.1	4.5	83.4	4.4	83.2	4.5	83.5	4.3
특별계정	16.8	-5.4	16.9	3.0	16.6	3.2	16.8	3.4	16.5	-7.3
총자산 규모	5,052,803		5,291,873		5,478,271		5,698,366		5,695,133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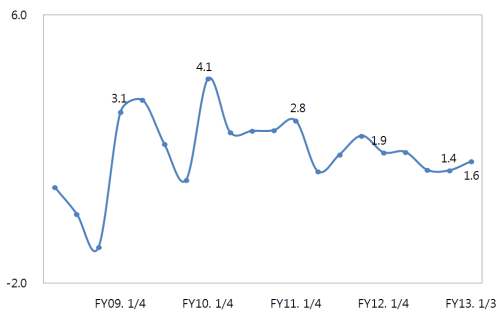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³⁾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총자본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1.6%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치면서 자본이익률이 하락함.
- 각각 2개의 외국사와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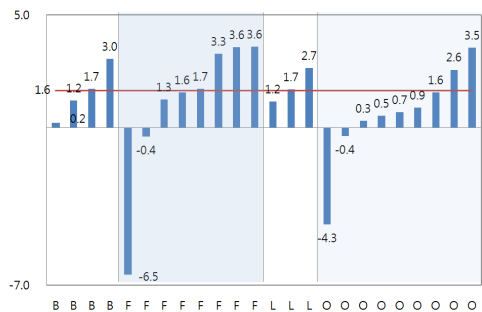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1/3분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이익률은 하락한 반면 외국사와 방카사의 자본이익률은 상승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0.4%p 상승한 2.4%

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이번 분기부터 농협생명보험의 진입으로 24개 회사임.

를 나타냈으며, 방카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자본이익률도 0.8%p 상승한 0.6%를 기록함.

- 대형사의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가 총자본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0.2%p 하락한 1.5%를 나타냈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자본이익률은 1.5%p 하락한 1.4%를 기록함.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생명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을 상회하였으며, 대형사의 경우 전체 자본이익률 수준을 소폭 하회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²⁾	1/4	2/4	3/4	4/4	연간 ²⁾	1/3
대형사	2.2	7.5	1.7	1.9	1.2	1.5	6.4	1.5
중소형사	3.6	13.5	2.9	2.2	1.4	1.1	7.1	1.4
외국사	2.6	11.4	2.0	2.1	2.1	0.9	7.3	2.4
방카사 ³⁾	1.3	0.4	-0.2	-1.8	1.2	1.8	1.4	0.6
전체	2.4	8.4	1.9	1.9	1.4	1.4	6.6	1.6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HSBC,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을 분해해보면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이 하락함.

-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9.1배를 나타냈으나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각각 0.5%p, 0.1%p 하락한 5.3%, 3.4%를 기록함.
- 대형사와 방카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한 반면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하락하였으며, 중소형사의 경우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이 하락하였고 외국사는 매출이익률만이 상승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대형사	8.4	8.1	8.5	4.5	5.5	4.3	4.5	3.5	4.2
중소형사	12.5	12.1	12.5	8.2	8.7	7.1	2.3	1.0	1.6
외국사	7.2	6.9	7.1	6.4	6.3	5.7	4.3	2.1	6.0
방카사	13.2	12.4	13.3	9.7	8.1	6.1	6.0	1.8	0.8
전체	9.1	8.8	9.1	5.8	6.5	5.3	3.5	2.4	3.4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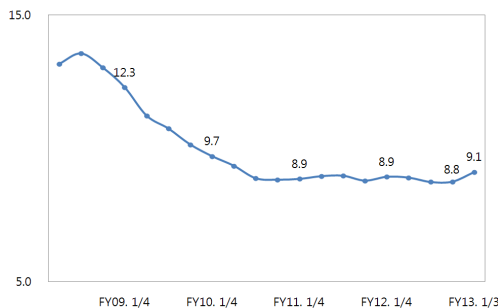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기중자본 증가율과 기중자산 증가율이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와 동일한 9.1배로 나타남.

○ 생명보험산업의 전년동기대비 자본증가율은 7.7%로 자산증가율 12.7%를 하회하였으나 기중자산과 기중자본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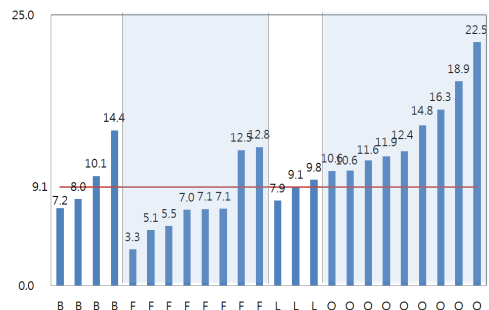
〈그림 5〉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3〉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1.9	-0.5	6.8	-10.0
중소형사	16.5	1.2	12.3	-8.3
외국사	9.0	-0.6	5.8	-7.8
방카사	17.3	0.3	12.9	-14.1
전체	12.7	-0.1	7.7	-9.4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회사그룹별로는 대형사와 방카사의 레버리지비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외국사의 레버리지비율은 하락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대형사	8.4	11.0	8.4	8.3	8.1	8.1	12.3	8.5
중소형사	12.6	15.2	12.6	12.4	12.2	12.1	8.3	12.5
외국사	7.2	10.2	7.2	6.9	6.8	6.9	14.5	7.1
방카사	12.5	15.7	13.2	12.8	12.4	12.4	8.0	13.3
전체	8.9	10.8	8.9	8.9	8.7	8.8	11.4	9.1

주: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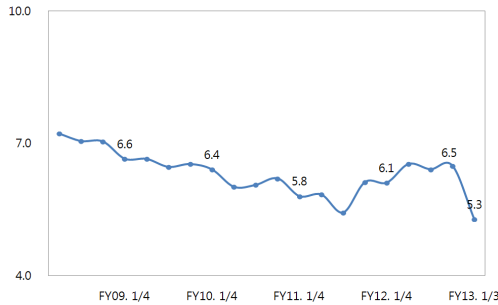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3 1/3분기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투자영업이익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0.5%p 하락한 5.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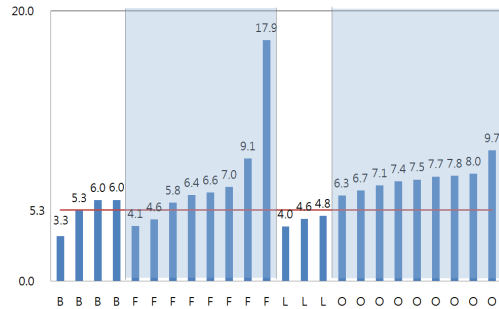
〈그림 7〉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회전율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감소로 보험영업수익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0.6%p 하락한 3.9%를 나타낸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 증가율이 총자산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와 같은 1.4%를 기록함.

〈표 15〉 생명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대형사	4.5	5.5	4.3	3.1	4.4	2.9	1.4	1.0	1.4
중소형사	8.2	8.7	7.1	6.8	7.4	5.7	1.4	1.3	1.4
외국사	6.4	6.3	5.7	5.1	5.0	4.4	1.3	1.2	1.3
방카사	9.7	8.1	6.1	8.6	7.0	4.9	1.1	1.1	1.2
전체	5.8	6.5	5.3	4.5	5.4	3.9	1.4	1.1	1.4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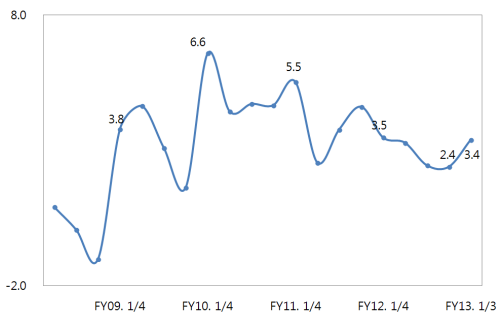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3.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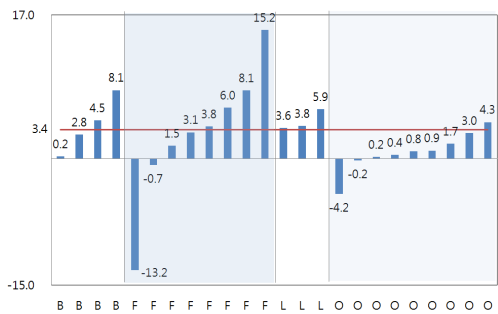
○ 보험영업이익률은 0.9%p 하락한 17.8%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률은 1.2%p 상승한 20.2%를 나타냄.

〈그림 9〉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단위: %)

〈그림 1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6〉 생명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대형사	4.5	3.5	4.2	13.3	34.6	14.0	24.5	19.7	24.5
중소형사	2.3	1.0	1.6	22.7	35.2	23.5	14.2	12.3	15.1
외국사	4.3	2.1	6.0	16.2	15.0	13.2	16.5	18.5	19.0
방카사	-0.2	1.8	0.8	49.8	44.0	29.5	11.1	13.2	16.9
전체	3.5	2.4	3.4	18.7	32.7	17.8	19.0	16.7	20.2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3 1/3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방카슈랑스채널 비중이 높은 저축성보험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카슈랑스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설계사, 대리점, 임직원 등 타 판매채널 비중은 모두 상승함.

○ FY2013 1/3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2%p 하락한 61.7%를 기록함.

○ 설계사와 대리점의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판매 비중이 높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각각 1.0%p, 0.3%p 상승한 20.3%, 5.7%를 기록함.

○ 임직원의 비중 또한 단체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8%p 증가한 12.1%를 나타냄.

〈표 17〉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임직원	7.3	21.3	5.3	2.6	6.9	3.6	4.5	12.1
설계사	23.4	24.7	19.3	19.6	23.9	19.9	21.0	20.3
대리점	6.7	7.1	5.4	5.3	8.3	5.6	6.3	5.7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62.3	46.6	69.9	72.5	60.8	70.8	68.1	61.7
기타	0.3	0.3	0.1	0.0	0.1	0.0	0.0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889	148,510	45,622	82,265	82,087	225,028	307,114	33,279

주: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3 1/3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는 증가한 반면 설계사 수와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42명 증가한 30,578명으로 나타났으며, 상위3사와 국내중소형사, 외국사 모두에서 증가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3,025명 감소하였으며, 전속설계사와 교체설계사가 각각 2,722명, 303명 감소함.

- 전속설계사 수는 상위3사에서 1천 명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내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 감소함.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이 증가한 반면 개인대리점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209개가 감소한 7,484개를 나타냄.

〈표 18〉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FY2013
	3/4	4/4	1/4	2/4	3/4	4/4	1/3
임직원	27,340	27,963	29,065	29,586	29,717	30,436	30,578
설계사	152,294	153,189	156,149	157,738	156,152	154,830	151,805
- 전속	141,034	141,499	144,736	147,004	145,933	145,113	142,391
- 교차	11,260	11,690	11,413	10,734	10,219	9,717	9,414
대리점	9,089	8,965	8,981	8,865	8,455	7,693	7,484
- 개인	5,857	5,712	5,624	5,514	5,157	4,451	4,141
- 법인	3,232	3,253	3,357	3,351	3,298	3,242	3,343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개요〉

■ FY2013 1/3분기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역성장과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저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에 그친 17조 3,584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세제개편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저축성보험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급락하여 4.9% 증가에 그친 10조 3,238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퇴직연금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3.1% 증가한 1조 6,877억 원을 나타냄.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할인형 상품⁵⁾ 판매 증가 등 대당보험료 감소세로 0.9% 줄어든 3조 2,338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시장 진입 효과 소진과 보증보험 실적 부진 등으로 2.6% 증가에 그친 2조 1,132억 원을 기록함.

■ FY2013 1/3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특별계정자산이 감소하였으나 일반계정자산이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5% 늘어난 160조 3,154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자산은 계속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료적립금 증가로 전분기대비 2.7% 늘어났으나 특별계정자산은 퇴직연금 사업 부진으로 퇴직연금 자산이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3.7% 감소함.

4)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5) 주행거리연동 특약, 블랙박스 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이 있음.

〈표 1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원수보험료	16.1	61.0	16.8	16.7	18.1	17.0	68.5	17.4
	(21.0)	(16.7)	(19.4)	(17.8)	(8.7)	(5.5)	(12.4)	(3.3)
장기손보	9.7	34.1	9.8	10.1	10.0	10.3	40.2	10.3
	(31.3)	(21.2)	(28.1)	(24.0)	(14.9)	(6.8)	(17.7)	(4.9)
연금부문 ²⁾	1.4	6.7	1.6	1.5	2.8	1.5	7.4	1.7
	(15.3)	(24.8)	(14.4)	(41.6)	(0.3)	(7.0)	(11.1)	(3.1)
자동차	3.3	13.0	3.3	3.2	3.2	3.1	12.8	3.2
	(1.1)	(5.1)	(2.0)	(-2.9)	(-1.6)	(-3.5)	(-1.5)	(-0.9)
일반손해	1.8	7.1	2.1	2.0	2.0	2.0	8.1	2.1
	(17.7)	(12.7)	(16.9)	(14.4)	(11.0)	(13.5)	(13.9)	(2.6)
총자산 ³⁾	129.8	129.8	138.5	146.0	151.8	156.5	156.5	160.3
	(5.3)	(27.0)	(6.7)	(5.4)	(4.0)	(3.1)	(20.5)	(2.5)
일반계정	124.9	124.9	133.5	140.4	146.0	150.2	150.2	154.3
	(4.9)	(26.8)	(6.8)	(5.2)	(4.0)	(2.9)	(20.2)	(2.7)
특별계정	4.9	4.9	5.2	5.6	5.8	6.3	6.3	6.0
	(15.3)	(32.9)	(5.8)	(7.7)	(3.4)	(8.6)	(27.8)	(-3.7)

주: 1) () 안은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고, 반올림에 따른 오차(rounding error)가 존재함.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FY2011 1/4분기부터 총자산 및 증감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1) 장기손해보험

■ FY2013 1/3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데다 계속보험료 증가세도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4.9% 증가에 그친 10조 3,238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비중이 큰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하고 계속보험료 증가율도 둔화되어 6.6% 감소한 2조 9,351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⁶⁾ 이전 급증하였던 신규계약의 계속보험료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각각 15.1%, 18.0% 증가한 2조 6,497억 원, 1조 9,390억 원을 나타냄.
-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 효과가 소진되면서 각각 0.2%, 1.5% 증가에 그친 6,156억 원, 9,451억 원을 시현함.

■ FY2013 1/3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 초회보험료가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4.5%나 줄어든 5,379억 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은 FY2012 세제개편 효과로 급증하였던 신규가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61.9% 감소한 3,919억 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의 경우 FY2012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 이전 신규 가입 수요가 집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FY2013 1/3분기 초회보험료는 20.5%나 감소한 447억 원을 기록함.
- 질병보험 초회보험료는 2013년 4월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⁷⁾의 본격적인 판매 등에 힘입어 58.6% 증가한 480억 원을 기록함.
-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추가 효과가 줄어들면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재물보험 초회보험료는 성장 동력 약화로 전년동기대비 11.6%나 감소함.

6)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됨.

7) 실손의료보험만을 주계약으로 단독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의미하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함.

〈표 20〉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1,889	83,554	23,029	23,813	24,678	25,782	97,301	26,497
		증가율	11.6	12.1	13.1	18.2	16.7	17.8	16.5	15.1
	운전자	보험료	5,642	22,781	6,146	6,129	6,151	6,128	24,555	6,156
		증가율	-1.3	1.1	6.9	7.3	8.3	8.6	7.8	0.2
	재 물	보험료	7,749	28,993	9,315	9,392	9,456	9,266	37,429	9,451
		증가율	30.3	33.1	48.7	26.2	25.5	19.6	29.1	1.5
	질 병	보험료	16,033	62,490	16,426	16,927	17,665	18,468	69,485	19,390
		증가율	8.6	10.4	7.6	9.3	12.4	15.2	11.2	18.0
	저축성	보험료	33,372	97,465	31,437	32,186	29,689	31,247	124,559	29,351
		증가율	102.7	55.8	75.8	53.4	17.7	-6.4	27.8	-6.6
	통합형	보험료	11,752	45,417	11,926	12,072	12,047	12,151	48,196	12,337
		증가율	8.8	6.2	7.7	7.9	5.7	3.4	6.1	3.4
	자산 연계형	보험료	136	732	103	99	96	73	371	56
		증가율	-43.0	-30.6	-53.6	-50.7	-44.9	-46.1	-49.3	-45.7
	소 계	보험료	96,572	341,432	98,381	100,619	99,782	103,114	401,896	103,238
		증가율	31.3	21.2	28.1	24.0	14.9	6.8	17.7	4.9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602	1,976	562	579	682	912	2,735	447
		증가율	9.3	-3.4	22.1	36.6	39.3	51.3	38.4	-20.5
	운전자	보험료	76	279	101	110	104	105	419	115
		증가율	-62.0	-48.3	52.7	68.7	45.3	36.7	50.1	14.7
	재 물	보험료	345	1,565	399	306	285	259	1,249	353
		증가율	9.9	42.5	12.3	-31.7	-31.5	-25.0	-20.2	-11.6
	질 병	보험료	331	1,150	302	377	498	650	1,828	480
		증가율	-3.9	-3.9	-2.6	59.8	82.4	96.4	58.9	58.6
	저축성	보험료	13,715	28,476	10,294	9,189	5,595	5,461	30,539	3,919
		증가율	432.9	132.9	261.0	95.8	-22.5	-60.2	7.2	-61.9
	통합형	보험료	198	603	153	142	130	230	653	67
		증가율	94.6	47.5	49.7	-9.8	-11.2	15.9	8.3	-56.3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2	0	0	0	0	0	0
		증가율	-100.0	-70.5	-84.9	-69.7	-100.0	-	-99.2	-100.0
	소 계	보험료	15,269	34,048	11,811	10,703	7,294	7,616	37,423	5,379
		증가율	273.6	94.5	184.9	77.6	-15.3	-50.1	9.9	-54.5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1,286	81,578	22,467	23,234	23,995	24,870	94,566	26,050
		증가율	11.7	12.6	12.9	17.8	16.1	16.8	15.9	16.0
	운전자	보험료	5,566	22,502	6,046	6,019	6,047	6,023	24,136	6,040
		증가율	0.9	2.3	6.4	6.6	7.9	8.2	7.3	-0.1
	재 물	보험료	7,403	27,428	8,916	9,086	9,171	9,007	36,180	9,098
		증가율	31.5	32.6	50.9	29.9	28.8	21.7	31.9	2.0
	질 병	보험료	15,701	61,340	16,124	16,550	17,167	17,817	67,658	18,910
		증가율	8.9	10.7	7.8	8.5	11.2	13.5	10.3	17.3
	저축성	보험료	19,657	68,989	21,143	22,997	24,094	25,787	94,020	25,433
		증가율	41.5	37.1	40.7	41.1	33.8	31.2	36.3	20.3
	통합형	보험료	11,554	44,813	11,773	11,931	11,917	11,921	47,543	12,271
		증가율	8.0	5.8	7.3	8.2	5.9	3.2	6.1	4.2
	자산 연계형	보험료	136	734	103	99	96	73	371	56
		증가율	-43.0	-30.9	-53.6	-50.7	-45.5	-46.1	-49.5	-45.7
	소 계	보험료	81,303	307,384	86,571	89,916	92,488	95,498	364,472	97,858
		증가율	17.0	16.3	19.1	19.7	18.2	17.5	18.6	13.0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20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1/3분기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상해, 질병, 저축성보험 해지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3%p 낮아진 3.1%를 기록함.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경우 FY2012 실손의료보험 제도변경 이전 신규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FY2013 연초보유계약액이 크게 늘어났으며, 해지율은 각각 0.3%p, 0.4%p 하락한 2.8%, 2.7%를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경우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보유계약액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지율이 0.4%p 하락한 3.1%를 기록함.

〈표 21〉 장기손해보험 해지율^{1,2)}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1/3
상 해	10.5	3.1	6.0	8.8	11.9	2.8
운전자	11.1	3.2	6.1	9.0	12.2	3.2
재 물	18.8	5.1	9.2	12.7	15.5	5.0
질 병	11.4	3.1	6.0	9.1	12.7	2.7
저축성	13.6	3.5	6.6	9.6	12.8	3.1
통합형	8.9	2.6	5.2	7.7	10.2	2.4
계	12.1	3.4	6.4	9.4	12.5	3.1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FY2013 1/3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개인연금 증가세 둔화와 퇴직연금 역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 그친 1조 6,877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⁸⁾ 효과가 약화됨에 따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FY2013 1/3분기 7.8% 늘어난 1조 622억 원을 시현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신규판매 부진으로 4.1% 감소한 6,25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 소진 이후인 FY2012 3/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8)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011년 1월부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됨.

〈표 22〉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개인 연금	보험료	9,343	34,273	9,857	10,296	10,707	10,628	41,489	10,622
	증가율 ¹⁾	35.2	38.8	29.9	25.6	17.1	13.8	21.1	7.8
	구성비 ²⁾	66.2	51.2	60.2	70.1	38.0	70.4	55.8	62.9
퇴직 보험	보험료	224	835	1	6	2	0	9	3
	증가율	102.3	-84.2	-99.8	48.5	-97.7	-100.0	-99.0	229.6
	구성비	1.6	1.2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4,547	31,791	6,516	4,389	17,465	4,469	32,840	6,251
	증가율	-12.8	34.6	4.8	102.3	-7.4	-1.7	3.3	-4.1
	구성비	32.2	47.5	39.8	29.9	62.0	29.6	44.2	37.0
합계	보험료	14,114	66,900	16,375	14,691	28,174	15,097	74,337	16,877
	증가율	15.3	24.8	14.4	41.6	0.3	7.0	11.1	3.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FY2013 1/3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대당보험료 감소세가 계속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3조 2,338억 원을 실현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주행거리연동자동차보험 할인 특약과 블랙박스 할인 특약 확대 등으로 1.5% 줄어든 7,992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대물 담보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률제 시행 이후 자차 담보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0.7% 감소한 2조 2,760억 원을 기록함.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대인 I		8,028	33,426	8,111	7,991	8,048	7,765	31,915	7,992
		-6.0	-3.4	-4.6	-6.9	-3.2	-3.3	-4.5	-1.5
종합 보험	대인 II	3,313	13,323	3,288	3,274	3,310	3,200	13,072	3,295
		3.2	3.2	1.3	-3.8	-1.5	-3.4	-1.9	0.2
	대물	9,970	38,342	10,280	10,259	10,450	10,335	41,325	10,923
		12.6	13.8	14.5	7.6	6.0	3.7	7.8	6.3
	자차	8,453	34,237	7,973	7,749	7,620	7,311	30,652	7,144
		-6.5	3.2	-7.0	-11.5	-9.9	-13.5	-10.5	-10.4
	자손	1,117	4,572	1,128	1,144	1,170	1,120	4,561	1,167
		-0.8	4.1	1.2	-2.8	0.5	0.3	-0.2	3.5
	무보험	258	1,074	254	250	250	227	982	231
		-8.4	-5.7	-6.4	-10.3	-5.7	-12.0	-8.6	-9.2
	소계	23,111	91,548	22,923	22,676	22,801	22,193	90,593	22,760
		2.7	7.3	3.3	-2.0	-1.3	-4.0	-1.0	-0.7
외화표시		25	122	30	23	33	25	111	34
		23.9	19.2	9.9	-24.2	-14.2	-2.9	-8.9	11.9
이륜자동차 ²⁾		151	637	268	211	161	152	792	250
		17.9	12.1	54.6	28.6	8.0	0.7	24.2	-6.7
기타 ³⁾		1,191	4,682	1,284	1,256	1,225	1,241	5,006	1,303
		27.0	31.8	18.1	4.5	1.8	4.2	6.9	1.5
합계		32,507	130,415	32,615	32,157	32,268	31,376	128,416	32,338
		1.1	5.1	2.0	-2.9	-1.6	-3.5	-1.5	-0.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3 1/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2%p 상승한 84.4%를 기록함.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1.3%p 상승한 83.9%를 기록함.

○ 종합보험 손해율은 할인형 상품 확대에 따른 대당보험료 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발생손해액 증가로 7.8%p 악화된 85.1%를 기록함.

〈표 24〉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대인 I		81.3	81.3	82.6	86.5	95.4	83.0	86.9	83.9
종합보험	대인 II	88.1	88.7	101.8	82.9	91.0	87.7	90.9	94.2
	대물	88.7	89.8	85.4	87.6	97.2	86.9	89.3	90.0
	자차	66.8	73.7	59.6	72.3	83.7	78.7	73.3	76.6
	자손	90.3	80.1	73.0	77.9	92.1	98.6	85.4	77.2
	무보험	64.6	60.1	50.6	64.2	56.2	40.2	53.0	55.1
	소계	80.1	82.6	77.3	80.7	90.8	84.3	83.3	85.1
외화표시		54.9	75.0	71.2	104.8	88.6	74.5	84.7	57.5
이륜자동차 ²⁾		81.9	88.3	95.9	86.4	77.6	67.7	81.2	90.8
기타 ³⁾		79.9	80.4	65.3	81.0	92.2	80.1	79.8	70.8
합계		80.6	82.2	78.2	82.1	91.9	83.7	84.0	84.4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되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FY2013 1/3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 해상, 보증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다 특종보험 성장세도 크게 둔화되어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친 2조 1,132억 원의 저성장을 기록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농협손해보험 실적 추가 효과가 사라지면서 3.4% 줄어든 755억 원을 기록함.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 둔화와 기저효과로 인한 항공보험 감소로 9.9% 감소한 2,122억 원을 시현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조정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6.9% 감소한 3,801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종합보험과 기타 특종보험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다른 대부분 종목의 실적이 부진하여 5.6%의 저성장을 기록함.

- 기술보험 원수보험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24.4% 감소한 792억 원을 기록함.

- 종합보험의 경우 기업성 물건 확대에 힘입어 14.9% 증가하였고, 기타 특종보험의 경우 19.7%나 증가한 2,582억 원을 시현하였으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하여 크게 둔화되었음.

〈표 25〉 일반손해보험²⁾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화재	보험료	656	2,636	782	758	946	808	3,293	755
	증가율	-0.2	-0.9	25.3	26.7	24.8	23.2	25.0	-3.4
	구성비	3.7	3.7	3.8	3.8	4.6	4.0	4.1	3.6
해상	보험료	2,335	8,699	2,356	2,217	2,165	1,493	8,230	2,122
	증가율	35.2	12.7	-1.5	3.7	18.1	-36.1	-5.4	-9.9
	구성비	13.3	12.3	11.4	11.2	10.6	7.5	10.2	10.0
보증	보험료	4,083	15,172	4,081	3,810	3,913	4,013	15,816	3,801
	증가율	17.2	16.1	15.1	4.8	0.1	-1.7	4.2	-6.9
	구성비	23.2	21.4	19.8	19.2	19.2	20.1	19.6	18.0
특종	보험료	9,525	41,230	12,377	11,867	12,063	12,249	48,557	13,064
	증가율	12.5	11.1	18.9	15.5	9.4	28.6	17.8	5.6
	구성비	54.1	58.2	60.1	59.9	59.1	61.3	60.1	61.8
해외 원보험	보험료	1,007	3,164	997	1,147	1,314	1,418	4,876	1,390
	증가율	61.6	36.1	56.6	72.1	53.8	40.8	54.1	39.5
	구성비	5.7	4.5	4.8	5.8	6.4	7.1	6.0	6.6
합계	보험료	17,606	70,901	20,593	19,798	20,401	19,981	80,773	21,132
	증가율	17.7	12.7	16.9	14.4	11.0	13.5	13.9	2.6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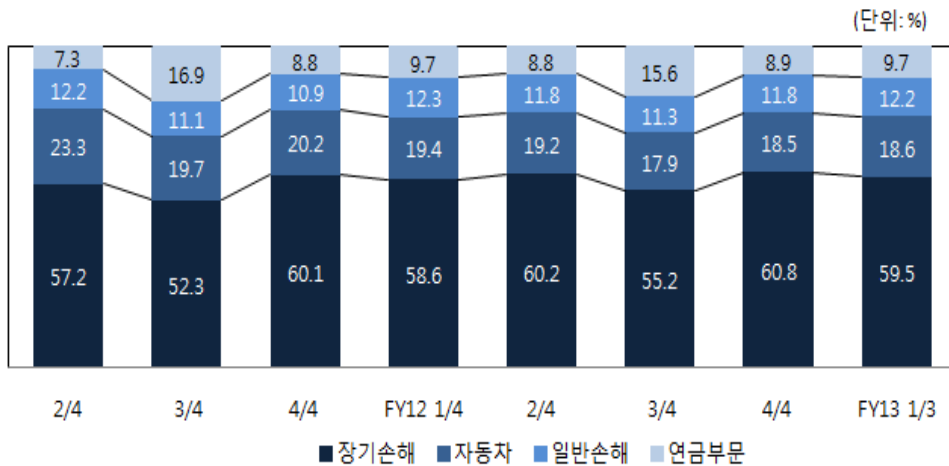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13 1/3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 비중은 하락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고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의 성장세가 더 크게 둔화됨에 따라 소폭(0.9%p) 상승한 59.5%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 비중은 마이너스 성장이 4분기 연속 지속되면서 0.8%p 축소된 18.6%를 기록함.
- 연금부문과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전년동기간과 유사한 9.7%, 12.2%를 나타냄.

〈그림 11〉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3 1/3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4사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 전업사, 외국사 점유율이 축소되었으며,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25 증가한 0.1459를 기록함.

- 상위 4사 점유율은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0.6%p 확대된 70.4%를 기록함.
- 전업사 점유율은 보증보험 실적 부진으로 0.2%p 낮아진 2.2%를 기록하였고, 외국사 점유율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0.1%p 줄어든 2.1%를 나타냄.
- 온라인사 점유율은 자동차보험 저성장세로 0.1%p 줄어든 2.0%를 기록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상위 4사	72.2	71.7	69.8	70.1	70.7	69.4	70.0	70.4
국내 중소형사 ²⁾	22.9	23.3	25.5	25.4	25.0	26.2	25.5	25.4
전업사	2.5	2.5	2.4	2.3	2.2	2.3	2.3	2.2
외국사	2.4	2.6	2.2	2.3	2.1	2.1	2.2	2.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2.3	2.5	2.1	2.2	2.0	2.1	2.1	2.0
허핀달지수 ³⁾	0.1492	0.1501	0.1434	0.1473	0.1465	0.1425	0.1448	0.1459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국내 중소형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3)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p 높아진 82.5%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당보험료 감소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발생손해액 증가 등으로 6.2%p 악화된 84.4%를 나타냄.
- 보증보험 손해율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94.0%p나 상승한 155.0%를 기록함.

■ FY2013 1/3분기 사업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3%p 높아진 19.5%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로 순사업비가 증가하여 1.8%p 높아진 18.4%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순사업비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고 저성장세로 보유보험료도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0.4%p 상승한 21.2%를 나타냄.

■ FY2013 1/3분기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동반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3.4%p 높아진 102.0%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손해율	장기손해보험 ²⁾	84.6	83.1	84.3	84.5	82.9	83.2	83.7	83.8
	자동차보험	80.6	82.2	78.2	82.1	91.9	83.7	84.0	84.4
	화재보험	62.6	59.0	59.1	68.2	52.7	56.1	59.2	56.8 ³⁾
	해상보험	60.2	57.2	64.3	49.7	56.1	77.8	61.5	48.6
	보증보험	67.5	55.0	61.0	68.6	48.1	72.3	62.3	155.0
	특종보험	69.6	68.0	61.1	79.8	72.1	69.3	70.6	59.8
	해외원보험	55.5	53.3	53.6	55.7	54.5	67.6	58.4	63.8
	해외수재보험	131.0	95.0	65.5	57.3	47.4	65.6	58.9	59.8
	전체	82.8	81.2	80.4	82.4	82.3	81.6	81.7	82.5
사업비율		18.9	18.4	18.2	18.7	20.0	21.1	19.5	19.5
합산비율		101.7	99.6	98.6	101.1	102.3	102.7	101.2	102.0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감안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보험영업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4,387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46.3%나 감소하였음.

- 보험영업이익은 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보증보험의 보험금 증가 등으로 5,5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과 금융자산처분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한 1조 2,027억 원 흑자를 기록함.

■ FY2013 1/3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⁹⁾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대비 19.8% 감소한 5,163억 원 흑자를 기록함.

9) 본고의 손해보험회사 수익성(자본이익률 등)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사를 기준으로 함.

〈표 28〉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총수익	보험영업	15,349	56,229	15,606	15,971	15,915	16,189	63,681	16,196
	투자영업	1,342	5,584	1,489	1,588	1,773	1,588	6,438	1,868
	기타	367	1,574	493	288	666	227	1,674	328
	소계	17,058	63,388	17,588	17,847	18,354	18,004	71,793	18,392
총비용	보험영업	15,853	56,795	15,621	16,354	16,457	16,807	65,237	16,749
	투자영업	262	1,529	377	316	581	375	1,649	665
	기타	407	1,705	523	315	721	233	1,793	359
	소계	16,522	60,030	16,520	16,985	17,760	17,415	68,679	17,774
수지차	보험영업	-504	-566	-15	-382	-542	-618	-1,556	-553
	투자영업	1,080	4,055	1,113	1,272	1,192	1,213	4,789	1,203
	기타	-40	-131	-30	-27	-56	-6	-119	-31
	소계	536	3,358	1,068	862	594	589	3,114	618
법인세		165	906	251	176	156	142	726	180
당기순이익(A) ³⁾		371	2,452	817	686	438	446	2,388	439
		(-24.2)	(20.7)	(-15.2)	(6.1)	(-7.1)	(21.9)	(-2.4)	(-46.3)
당기순이익(B) ⁴⁾		444	1,994	644	554	313	350	1,861	516
		(16.4)	(79.0)	(-10.7)	(20.2)	(-14.9)	(-21.2)	(-6.7)	(-19.8)

주: 1)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 · 총자본〉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는 총부채와 총자본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5.7% 늘어난 160조 3,154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한 138조 4,548억 원을 시현함.

-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한 21조 8,606억 원을 기록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3/4	4/4	1/4	2/4	3/4	4/4	1/3
책임준비금	금액	90.2	95.6	102.4	108.1	111.9	115.6	120.9
	증가율 ¹⁾	30.5	32.5	26.2	26.3	24.0	21.0	18.1
기타부채	금액	9.2	9.4	10.4	10.2	11.2	11.0	11.4
	증가율	23.0	21.2	7.9	15.9	20.9	17.5	9.6
특별계정부채	금액	4.9	5.0	5.4	5.6	6.3	6.3	6.1
	증가율	27.9	34.9	28.0	44.0	28.7	24.8	14.1
부채총계	금액	104.4	110.0	118.2	123.9	129.4	132.9	138.5
	증가율	23.8	25.6	24.4	26.0	24.0	20.9	17.1
자본금	금액	2.2	2.2	2.2	2.2	2.1	2.1	2.0
	증가율	-33.5	-31.6	-1.0	-2.1	-4.7	-5.1	-6.5
자본잉여금	금액	1.5	1.5	1.9	1.8	1.9	1.9	2.1
	증가율	1.9	2.2	33.9	22.8	30.1	24.6	12.8
이익잉여금	금액	12.3	12.6	12.8	13.6	14.1	14.4	14.7
	증가율	73.9	67.0	11.5	14.8	14.8	14.0	14.1
자본조정	금액	-0.3	-0.2	-0.2	-0.6	-0.6	-0.6	-0.6
	증가율	-32.4	-61.5	-17.2	104.7	87.1	148.7	140.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3	3.8	3.7	5.1	4.9	5.7	3.6
	증가율	1.5	25.7	21.3	71.8	45.6	51.4	-2.6
자본총계	금액	19.0	19.9	20.4	22.1	22.4	23.6	21.9
	증가율	29.3	35.2	13.8	21.3	18.0	18.3	7.3
부채및자본총계	금액	123.4	129.8	138.6	146.0	151.8	156.5	160.3
	증가율	24.6	27.0	22.8	25.3	23.1	20.5	15.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낮아진 3.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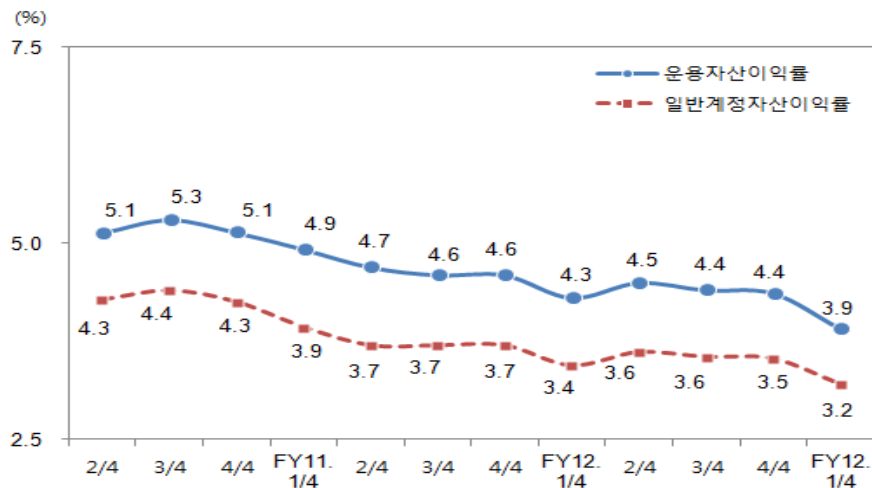
○ 비중이 큰 유가증권의 이익률은 주식과 채권 이익률이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하락함에 따라 0.3%p 낮아진 3.8%를 나타냄.

○ 현금과 예금, 그리고 대출채권 이익률은 각각 0.1%p, 0.8%p 하락한 3.7%, 5.0%를 기록함.

■ FY2013 1/3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3.2%, 대출채권 19.5%, 현금과 예금 5.0%, 부동산 4.2% 순으로 나타남.¹⁰⁾

○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p, 1.4%p 확대된 반면,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1.8%p, 0.6%p 축소됨.

〈그림 12〉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0)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30〉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1/4		2/4		3/4		4/4		1/3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4	100.0	3.6	100.0	3.6	100.0	3.5	100.0	3.2
운용자산 계	80.7	4.3	80.9	4.5	81.5	4.4	81.9	4.4	81.9	3.9
현금과예금	6.8	3.8	5.9	3.6	5.3	2.8	4.7	3.2	5.0	3.7
유가증권	51.1	4.1	52.4	4.5	53.6	4.5	54.3	4.4	53.2	3.8
○ 당기손익인식증권 ³⁾	3.3	3.3	3.5	5.8	3.5	4.7	4.4	4.1	3.3	-0.1
- 주식	0.1	-21.3	0.1	11.3	0.1	6.3	0.1	6.3	0.1	-14.0
- 채권 등	2.0	4.9	2.1	6.7	2.0	5.4	2.2	5.2	1.5	-1.5
- 수익증권	1.3	3.6	1.3	3.3	1.3	3.1	2.1	2.2	1.7	2.0
○ 매도가능증권	42.4	4.2	43.7	4.5	44.9	4.5	45.4	4.5	44.3	4.0
- 주식	4.2	-0.3	4.2	0.3	4.4	0.5	4.0	-0.6	3.6	-1.7
- 채권 등	34.7	4.9	35.8	5.2	36.6	5.2	37.7	5.2	36.8	4.5
- 수익증권	3.5	3.4	3.7	2.6	3.8	3.0	3.7	3.4	3.9	5.0
○ 만기보유증권	3.8	5.4	3.7	5.4	3.9	5.3	2.9	6.1	4.2	4.9
- 채권 등	3.8	5.4	3.7	5.4	3.9	5.3	2.9	6.1	4.2	4.9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재종속기업투자주식	1.5	-0.2	1.5	0.9	1.4	1.4	1.6	0.3	1.4	2.4
대출채권	18.1	5.8	18.0	5.7	18.2	5.6	18.7	5.4	19.5	5.0
부동산	4.8	1.3	4.5	0.9	4.4	1.0	4.3	1.0	4.2	1.3
비운용자산	19.3	-0.1	19.1	-0.1	18.5	0.0	18.1	0.0	18.1	0.0
총자산	100.0	3.3	100.0	3.4	100.0	3.4	100.0	3.4	100.0	3.1
일반계정	96.3	3.4	96.2	3.6	96.2	3.6	96.0	3.5	96.2	3.2
특별계정	3.7	0.0	3.8	0.0	3.8	0.0	4.0	0.0	3.8	0.0
총자산 규모	1,385,178		1,459,065		1,517,939		1,564,632		1,603,154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 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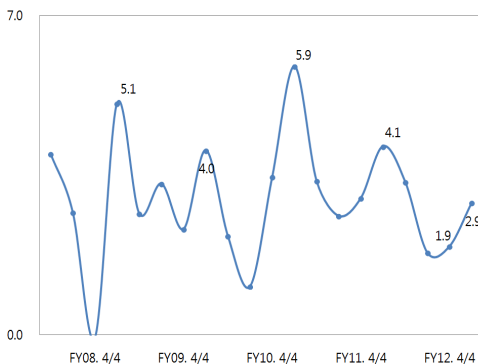
1) 자본이익률(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¹¹⁾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p 하락한 2.9%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1.0%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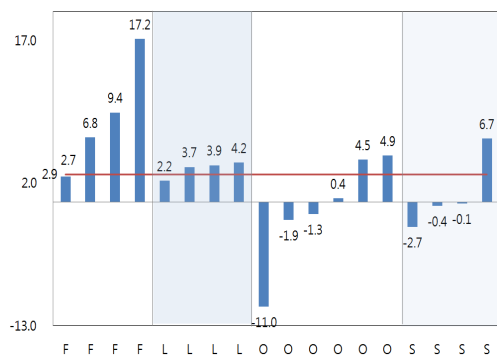
- 대형사와 외국사 모두 양(+)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일부 중소형사들은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 전업사는 자동차보험 실적 부진으로 대부분 음(-)의 자본이익률을 시현함.

〈그림 1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14〉 회사별 자본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1)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R_t / E_t^o :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을 매출이익률(R_t / S_t :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자산회전율(S_t / A_t^o : 기중자산대비 매출액), 레버리지비율(A_t^o / E_t^o : 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로 분해하여 분석하며, 분석대상은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외국사는 상승한 반면,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는 하락함.

-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장기손해보험 둔화세와 자동차보험 실적 부진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4%p, 1.2%p, 2.7%p 하락한 2.9%, 2.2%, 2.7%를 기록함.
-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도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일부 외국사의 실적 호조 등으로 4.2%p 상승한 6.8%를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추이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²⁾	1/4 ³⁾	2/4	3/4	4/4	연간 ²⁾	1/3
대형사	3.6	17.6	4.3	3.4	2.3	2.2	12.6	2.9
중소형사	-0.4	9.9	3.4	3.4	0.7	1.1	8.7	2.2
외국사	0.5	20.9	2.6	5.8	1.3	1.3	11.7	6.8
전업사	-0.6	4.2	5.4	-0.9	-10.2	-0.4	-6.0	2.7
전체	3.0	16.3	4.2	3.4	1.8	1.9	11.6	2.9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1 4/4분기까지는 17개사, FY2012 1/4분기부터는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사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7.7배를 기록하였으나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은 각각 1.2%p, 1.1%p 하락한 12.1%, 3.1%를 나타냄.¹²⁾

- 중소형사 레버리지비율은 하락하였으나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의 레버리지비율은 상승함.
- 자산회전율과 매출이익률의 경우 대부분 그룹에서 하락하였으며, 이는 원수보험료 증가세 둔화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보험영업 적자가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감소하였기 때문임.

12) 자본이익률은 레버리지비율, 자산회전율, 매출이익률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표 32〉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자본이익률 분해

(단위: 배, %)

구분	레버리지비율 ¹⁾			자산회전율 ²⁾			매출이익률 ³⁾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대형사	6.7	6.7	7.0	13.1	11.9	11.9	4.9	2.7	3.5
중소형사	13.9	12.8	12.7	13.2	12.3	12.1	1.7	0.7	1.4
외국사	2.4	2.5	4.6	23.2	22.7	22.5	4.7	2.3	12.1
전업사	4.6	4.8	4.7	17.5	17.1	17.4	6.7	-0.5	3.3
전체	7.4	7.4	7.7	13.3	12.1	12.1	4.2	2.2	3.1

주: 1) 레버리지비율(배) = 기중자산 / 기중자본

2)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3)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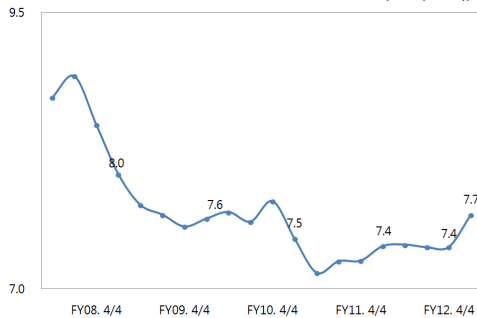
① 레버리지비율(기중자본대비 기중자산)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7.7배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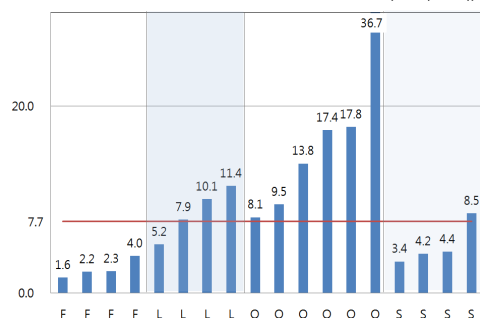
○ 그룹별로는 대부분 중소형사와 대형사들이 산업평균수준인 7.7배를 상회한 반면, 외국사와 전업사들은 평균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배)

〈그림 16〉 회사별 레버리지비율^{1),2)}

(단위: 배)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레버리지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레버리지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3〉 FY2012 4/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 및 자본증가율¹⁾

(단위: %)

구분	자산증가율		자본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대형사	16.1	2.4	6.3	-9.6
중소형사	20.0	3.2	27.5	2.4
외국사	14.4	3.4	11.4	6.7
전업사	-4.3	-2.6	-6.0	0.8
전체	16.7	2.5	8.9	-7.4

주: 1) 손해보험회사의 자산 및 자본증가율은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 국내외 18개사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 그룹별 레버리지비율은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중소형사는 하락함.

- 대형사, 외국사, 전업사 레버리지비율은 자산증가율이 자본증가율을 상회하여 각각 0.3p, 0.1p, 0.1p 상승한 7.0배, 2.5배, 4.7배를 나타냄.
-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1.2p 하락한 12.7배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레버리지비율¹⁾ 추이

(단위: 배)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대형사	6.5	7.1	6.7	6.7	6.7	6.7	6.9	7.0
중소형사	14.0	14.7	13.9	13.2	12.9	12.8	13.7	12.7
외국사	2.4	3.0	2.4	2.4	2.4	2.5	2.5	2.5
전업사	4.9	4.7	4.6	4.5	4.7	4.8	4.8	4.7
전체	7.3	7.9	7.4	7.4	7.4	7.4	7.6	7.7

주: 1) 레버리지비율 = 기중자산 / 기중자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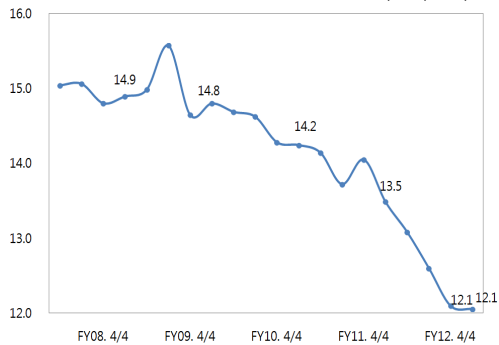
② 자산회전율(기중자산대비 매출액)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은 보험영업수익 증가율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1.4%p 낮아진 12.1%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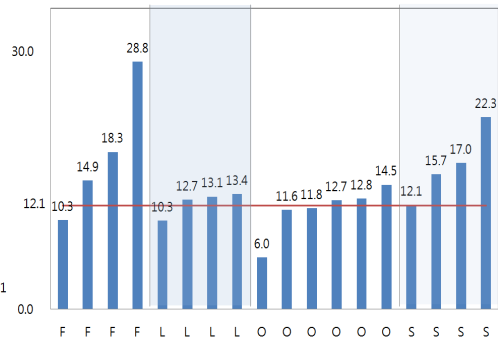
○ 대부분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회전율이 산업평균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일부 외국사의 자산회전율은 자산 규모가 작아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17〉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단위: %)

〈그림 18〉 회사별 자산회전율^{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산회전율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산회전율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10.8%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회전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1.3%를 나타냄.

〈표 35〉 손해보험산업 자산회전율 분해

(단위: %)

구분	자산회전율 ¹⁾			보험영업회전율 ²⁾			투자영업회전율 ³⁾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대형사	13.1	11.9	11.9	11.9	10.8	10.5	1.2	1.1	1.3
중소형사	13.2	12.3	12.1	12.1	11.3	11.0	1.1	1.0	1.1
외국사	23.2	22.7	22.5	22.5	22.1	21.9	0.7	0.6	0.6
전업사	17.5	17.1	17.4	16.6	16.4	16.7	0.8	0.7	0.8
전체	13.3	12.1	12.1	12.1	11.0	10.8	1.2	1.1	1.3

주: 1) 자산회전율 = 영업수익* / 기중자산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2) 보험영업회전율 = 보험영업수익 / 기중자산

3) 투자영업회전율 = 투자영업수익 / 기중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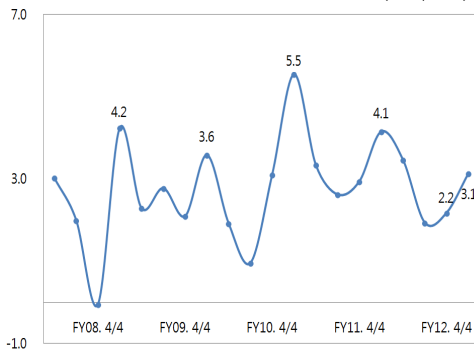
③ 매출이익률(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하락한 3.1%를 기록하였으며, 전분기대비로는 0.9%p 상승함.

○ 실적 부진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대부분의 중소형사와 전업사가 음(-)의 매출이익률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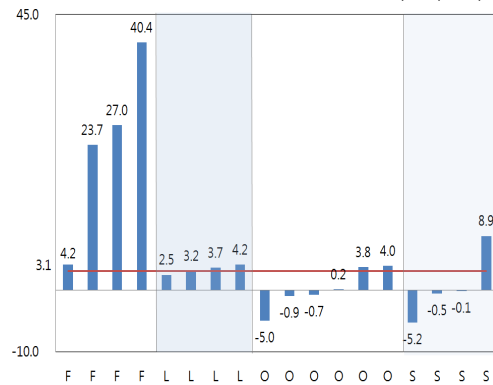
〈그림 19〉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단위: %)



〈그림 20〉 회사별 매출이익률^{1),2)}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매출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매출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FY2013 1/3분기 손해보험산업 보험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6%p 하락한 -2.4%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한 6.7%를 시현함.

〈표 36〉 손해보험산업 매출이익률 분해

(단위: %)

구분	매출이익률 ¹⁾			보험영업 ²⁾			투자영업 ³⁾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FY2011 4/4	FY2012 4/4	FY2013 1/3	FY2012 1/4	FY2012 4/4	FY2013 1/3
대형사	4.9	2.7	3.5	-0.2	-3.2	-2.1	6.9	6.9	6.9
중소형사	1.7	0.7	1.4	-3.3	-6.0	-4.2	5.8	6.8	6.7
외국사	4.7	2.3	12.1	3.7	3.7	11.4	3.0	2.0	2.5
전업사	6.7	-0.5	3.3	3.5	-3.8	-0.1	4.2	2.8	3.9
전체	4.2	2.2	3.1	-0.8	-3.8	-2.4	6.6	6.7	6.7

주: 1) 매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영업수익 *당기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이익 + 특별계정이익 - 법인세비용

2) 보험영업이익률 = 보험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3) 투자영업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영업수익 *영업수익 = 보험영업수익 + 투자영업수익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3 1/3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의 경우 임직원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축소된 반면, 설계사 채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은 확대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퇴직연금 부진 등으로 0.8%p 감소한 13.7%를 기록함.
- 농협손해보험의 시장 진입으로 확대되었던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저축성보험의 신규판매 감소 등으로 0.7%p 줄어든 11.5%를 나타냄.
- 설계사 채널과 대리점 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축소됨에 따라 각각 전년 동기대비 1.1%p, 0.4%p 증가한 30.8%, 43.2%를 기록함.

〈표 3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임직원	21,138	97,115	24,396	22,518	34,274	21,754	102,941	23,802
	13.1	15.9	14.5	13.5	19.0	12.8	15.0	13.7
설계사	49,012	189,640	49,886	52,119	52,267	52,017	206,290	53,442
	30.5	31.1	29.7	31.2	28.9	30.7	30.1	30.8
대리점	64,971	259,195	71,963	71,767	75,279	65,241	284,249	74,948
	40.4	42.5	42.8	42.9	41.7	38.5	41.5	43.2
중개사	930	4,424	1,113	1,206	1,421	1,063	4,803	1,248
	0.6	0.7	0.7	0.7	0.8	0.6	0.7	0.7
방카슈랑스	24,416	58,327	20,458	19,476	17,189	29,169	86,293	20,008
	15.2	9.6	12.2	11.6	9.5	17.2	12.6	11.5
공동인수	333	946	148	178	196	324	846	136
	0.2	0.2	0.1	0.1	0.1	0.2	0.1	0.1
전체	160,799	609,648	167,964	167,265	180,625	169,568	685,422	173,5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 기준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3 1/3분기 말 임직원 수와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대리점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손해보험회사들의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대비 106명 증가한 3만 2,944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상위 4사¹³⁾ 설계사 수는 줄어들었으나 국내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설계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945명 증가한 16만 8,968명을 나타냄.

13)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를 의미함.

- 대리점 수는 대리점 대형화 추세로 개인대리점 감소세가 계속됨에 따라 143개 줄어든 3만 7,500개를 기록함.

〈표 3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1		FY2012				FY2013
	3/4	4/4	1/4	2/4	3/4	4/4	1/3
임직원	30,470	31,003	31,816	32,464	32,438	32,838	32,944
설계사	161,441	161,237	167,101	168,545	170,165	168,023	168,968
- 전속	87,893	88,179	92,179	93,400	95,017	93,167	93,712
- 교차	73,548	73,058	74,922	75,145	75,148	74,856	75,256
대리점	40,543	39,818	39,425	38,857	38,957	37,643	37,500
- 개인	28,670	27,844	27,445	26,929	26,399	24,419	24,063
- 법인	11,873	11,974	11,980	11,928	12,558	13,224	13,437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3.60	3.40	2.80	2.40	1.60	1.50	1.50	2.30
경상수지		7,894	11,394	2,560	11,189	14,562	14,828	9,972	19,803
수출		141,253	140,370	134,846	140,130	133,125	139,768	135,343	141,189
수입		134,957	131,209	133,671	130,431	125,652	129,831	129,686	126,871
실업률		3.1	2.9	3.8	3.3	3.0	2.8	3.6	3.1
금리	국고채(3년)	3.60	3.41	3.45	3.39	2.88	2.81	2.68	2.67
	회사채(3년)	4.34	4.26	4.28	4.04	3.44	3.31	3.07	3.04
소비자물가지수		104.7	104.9	105.9	106.1	106.4	106.7	107.4	107.3
환율	원/달러	1,083.0	1,144.8	1,131.5	1,151.8	1,133.5	1,090.9	1,084.1	1,122.2
	원/엔화	1,392.7	1,479.7	1,427.9	1,436.9	1,441.2	1,346.1	1,175.6	1,137.4
KOSPI		1936.81	1849.30	1972.55	1910.29	1902.32	1940.24	1985.40	1932.58
외환보유고		303,384	306,402	315,952	312,378	322,015	326,968	327,408	326,440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부록 표 I -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4/4	1/4	2/4	3/4	4/4	1/4	2/4	3/4
보험 ¹⁾	124,734	121,898	139,042	174,037	201,794	195,836	139,623	-
- 생보	97,036	96,401	105,806	145,350	169,906	166,114	109,365	-
수입보험료	236,899	223,891	245,286	281,233	313,339	313,227	245,003	-
지급보험금	139,863	127,49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135,639	-
- 손보	27,698	25,497	33,236	28,687	31,889	29,722	30,258	-
원수보험료	166,153	160,799	167,964	167,265	180,624	169,569	173,584	-
원수손해액	138,455	135,303	134,729	138,578	148,736	139,847	143,326	-
은행	263,282	269,108	120,525	113,355	104,974	123,354	182,746	-9,240
- 일반 ²⁾	173,064	190,485	108,131	54,395	118,680	48,120	147,443	-34,417
- 신탁	90,218	78,623	12,394	58,960	-13,706	75,234	35,303	25,417
증권 ³⁾	10,078	44,117	-33,365	67,718	-22,900	96,983	9,232	18,841
자산운용 ⁴⁾	-105,662	50,029	83,820	32,104	21,299	183,595	44,093	14,389
종금 ⁵⁾	-52,656	11,809	-490	-17,161	-2,493	-21,220	-11,420	311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충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생존	보험료	51,654	179,425	58,357	89,359	91,316	97,580	336,612	53,144
	증가율	16.1	5.0	42.6	107.5	108.6	88.9	87.6	-8.9
	구성비	23.1	20.4	23.8	31.8	29.1	31.2	29.2	21.7
사망	보험료	72,171	287,112	76,376	76,309	77,232	78,494	308,411	78,913
	증가율	0.8	0.0	6.8	6.5	7.6	8.8	7.4	3.3
	구성비	32.2	32.7	31.1	27.1	24.6	25.1	26.7	32.2
생사 혼합	보험료	37,134	122,378	46,073	54,615	52,905	68,084	221,677	47,606
	증가율	29.0	16.3	68.5	91.7	79.9	83.3	81.1	3.3
	구성비	16.6	13.9	18.8	19.4	16.9	21.7	19.2	19.4
변액 보험	보험료	53,102	212,937	52,354	51,775	52,803	55,297	212,230	52,577
	증가율	0.3	9.7	-1.2	-5.4	1.3	4.1	-0.3	0.4
	구성비	23.7	24.2	21.3	18.4	16.9	17.7	18.4	21.5
개인계	보험료	214,061	801,852	233,160	272,058	274,256	299,455	1,078,929	232,239
	증가율	8.2	5.9	20.9	37.5	39.1	39.9	34.6	-0.4
	구성비	95.6	91.3	95.1	96.7	87.5	95.6	93.6	94.8
단체	보험료	9,831	76,508	12,126	9,175	39,083	13,772	74,156	12,765
	증가율	-31.0	5.3	-32.0	1.5	-1.8	40.1	-3.1	5.3
	구성비	4.4	8.7	4.9	3.3	12.5	4.4	6.4	5.2
합계	보험료	223,891	878,360	245,286	281,233	313,339	313,227	1,153,086	245,003
	증가율	5.6	5.8	16.5	35.9	32.3	39.9	31.3	-0.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26,428	100,720	25,718	26,885	28,993	28,657	110,254	26,096
	증가율	1.1	5.7	15.3	2.7	12.4	8.4	9.5	1.5
	지급률	51.2	56.1	44.1	30.1	31.8	29.4	32.8	49.1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0,956	153,111	42,030	43,438	42,291	45,951	173,710	42,868
	증가율	8.2	4.0	16.7	14.5	10.7	12.2	13.5	2.0
	지급률	56.7	53.3	55.0	56.9	54.8	58.5	56.3	54.3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4,533	53,032	30,094	24,049	23,177	27,628	104,948	27,646
	증가율	-2.3	-8.9	145.7	84.7	75.2	90.1	97.9	-8.1
	지급률	39.1	43.3	65.3	44.0	43.8	40.6	47.3	58.1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1,495	114,772	27,824	29,795	30,903	30,318	118,839	26,178
	증가율	-11.4	-11.3	-17.0	13.4	31.7	-3.7	3.5	-5.9
	지급률	59.3	53.9	53.1	57.5	58.5	54.8	56.0	49.8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13,413	421,635	125,666	124,167	125,365	132,553	507,751	122,788
	증가율	-0.9	-2.0	20.7	20.0	24.5	16.9	20.4	-2.3
	지급률	53.0	52.6	53.9	45.6	45.7	44.3	47.1	52.9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4,077	95,315	13,814	11,716	18,069	14,560	58,159	12,851
	증가율	-57.1	-10.9	-51.1	-15.0	-53.9	3.4	-39.0	-7.0
	지급률	143.2	124.6	113.9	127.7	46.2	105.7	78.4	100.7
전체	지급보험금	127,490	516,950	139,480	135,883	143,434	147,113	565,911	135,639
	증가율	-13.4	-3.8	5.4	15.9	2.6	15.4	9.5	-2.8
	지급률	56.9	58.9	56.9	48.3	45.8	47.0	49.1	55.4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	사업비	9,168	35,935	9,077	9,970	10,157	10,399	39,603	7,859
	증가율	2.2	9.1	3.1	9.1	15.1	13.4	10.2	-13.4
	사업비율	17.7	20.0	15.6	11.2	11.1	10.7	11.8	14.8
사망 보험	사업비	20,939	81,056	21,511	22,634	23,625	25,280	93,050	23,143
	증가율	2.3	7.2	13.1	11.4	13.6	20.7	14.8	7.6
	사업비율	29.0	28.2	28.2	29.7	30.6	32.2	30.2	29.3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6,216	24,299	5,972	5,678	6,101	5,947	23,698	4,712
	증가율	-0.2	11.2	-1.4	-7.6	3.8	-4.3	-2.5	-21.1
	사업비율	16.7	19.9	13.0	10.4	11.5	8.7	10.7	9.9
개인 보험계	사업비	36,324	141,291	36,590	38,253	39,882	41,626	156,351	35,714
	증가율	1.9	8.3	8.0	7.5	12.4	14.6	10.7	-2.4
	사업비율	17.0	17.6	15.7	14.1	14.5	13.9	14.5	15.4
단체 보험계	사업비	1,121	4,362	1,117	1,213	1,136	1,221	4,687	1,005
	증가율	-7.5	3.4	14.1	15.3	-6.0	8.9	7.5	-10.0
	사업비율	11.4	5.7	9.2	13.2	2.9	8.9	6.3	7.9
전체	사업비	37,445	145,652	37,707	39,466	41,018	42,847	161,038	36,719
	증가율	1.5	8.2	8.2	7.7	11.8	14.4	10.6	-2.6
	사업비율	16.7	16.6	15.4	14.0	13.1	13.7	14.0	15.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1,2)}

(단위: 억 원,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3
화재	보험료	656	2,636	782	758	946	808	3,293	755
	증가율 ³⁾	-0.2	-0.9	25.3	26.7	24.8	23.2	25.0	-3.4
	구성비	0.4	0.4	0.5	0.5	0.5	0.5	0.5	0.4
해상	보험료	2,335	8,699	2,356	2,217	2,165	1,493	8,230	2,122
	증가율	35.2	12.7	-1.5	3.7	18.1	-36.1	-5.4	-9.9
	구성비	1.5	1.4	1.4	1.3	1.2	0.9	1.2	1.2
자동차	보험료	32,507	130,415	32,615	32,157	32,268	31,376	128,416	32,338
	증가율	1.1	5.1	2.0	-2.9	-1.6	-3.5	-1.5	-0.9
	구성비	20.2	21.4	19.4	19.2	17.9	18.5	18.7	18.6
보증	보험료	4,083	15,172	4,081	3,810	3,913	4,013	15,816	3,801
	증가율	17.2	16.1	15.1	4.8	0.1	-1.7	4.2	-6.9
	구성비	2.5	2.5	2.4	2.3	2.2	2.4	2.3	2.2
특종	보험료	9,525	41,230	12,377	11,867	12,063	12,249	48,557	13,064
	증가율	12.5	11.1	18.9	15.5	9.4	28.6	17.8	5.6
	구성비	5.9	6.8	7.4	7.1	6.7	7.2	7.1	7.5
해외 원보험	보험료	1,007	3,164	997	1,147	1,314	1,418	4,876	1,390
	증가율	61.6	36.1	56.6	72.1	53.8	40.8	54.1	39.5
	구성비	0.6	0.5	0.6	0.7	0.7	0.8	0.7	0.8
장기 손해	보험료	96,572	341,432	98,381	100,619	99,782	103,114	401,896	103,238
	증가율	31.3	21.2	28.1	24.0	14.9	6.8	17.7	4.9
	구성비	60.1	56.0	58.6	60.2	55.2	60.8	58.6	59.5
개인 연금	보험료	9,343	34,273	9,857	10,296	10,707	10,628	41,489	10,622
	증가율	35.2	38.8	29.9	25.6	17.1	13.8	21.1	7.8
	구성비	5.8	5.6	5.9	6.2	5.9	6.3	6.1	6.1
퇴직 보험	보험료	224	835	1	6	2	0	9	3
	증가율	102.3	-84.2	-99.8	48.5	-97.7	-100.0	-99.0	229.6
	구성비	0.1	0.1	0.0	0.0	0.0	0.0	0.0	0.0
퇴직 연금	보험료	4,547	31,791	6,516	4,389	17,465	4,469	32,840	6,251
	증가율	-12.8	34.6	4.8	102.3	-7.4	-1.7	3.3	-4.1
	구성비	2.8	5.2	3.9	2.6	9.7	2.6	4.8	3.6
계	보험료	160,799	609,648	167,964	167,265	180,624	169,569	685,422	173,584
	증가율	21.0	16.7	19.4	17.8	8.7	5.5	12.4	3.3

주: 1)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2)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1),2),3)}

(단위: %)

구분		FY2011	FY2012				FY2013
		4/4	1/4	2/4	3/4	4/4	1/3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62.6	59.1	68.1	52.7	56.1	56.8 ⁴⁾
	사업비율	52.7	48.4	48.8	43.8	55.9	55.3
	합산비율	115.3	107.5	117.0	96.5	112.0	112.1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60.2	64.3	49.7	56.1	77.8	48.6
	사업비율	42.1	26.8	24.9	42.3	39.2	31.3
	합산비율	102.3	91.1	74.6	98.4	117.0	79.9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67.5	61.0	68.6	48.1	72.3	155.0
	사업비율	14.4	10.0	14.1	14.0	48.2	12.4
	합산비율	81.9	70.9	82.7	62.0	120.5	167.4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9.6	61.1	79.8	72.1	69.3	59.8
	사업비율	23.6	19.5	17.6	20.6	24.3	18.7
	합산비율	93.2	80.7	97.4	92.8	93.5	78.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5.5	53.6	55.7	54.5	67.6	63.8
	사업비율	50.1	40.6	35.8	38.1	41.1	37.7
	합산비율	105.6	94.3	91.5	92.6	108.7	101.5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131.0	65.5	57.3	47.4	65.6	59.8
	사업비율	29.4	35.3	28.7	60.1	1.9	30.3
	합산비율	160.4	100.8	85.9	107.5	67.5	90.1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0.6	78.2	82.1	91.9	83.7	84.4
	사업비율	22.0	20.8	21.9	21.6	21.4	21.2
	합산비율	102.5	99.0	103.9	113.5	105.2	105.6
장기보험 ³⁾	경과손해율	84.6	84.3	84.5	82.9	83.2	83.8
	사업비율	16.7	16.6	17.3	18.2	19.9	18.4
	합산비율	101.2	100.9	101.8	101.1	103.0	102.2
전체	경과손해율	82.8	80.4	82.4	82.3	81.6	82.5
	사업비율	18.9	18.2	18.7	20.0	21.1	19.5
	합산비율	101.7	98.6	101.1	102.3	102.7	102.0

주: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이며, FY2011부터 IFRS가 적용됨.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임.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부 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40호 (7.1)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지연 (이정환)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중 11개국이 2014년부터 먼저 실행하기로 하였던 금융거래세 도입이 최소 6개월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유럽보험협회(Insurance Europe)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채권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는 채권거래를 감소시킬 수 있어 거래 역시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Insurance Europe 등)
제240호 (7.1)	최근 중국 금융시장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 · 6월초부터 중국 은행 간 단기자금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나타냄. · 전체 무역 중 중국과의 수출입 규모가 큰 편인 우리나라는 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WSJ, FT 등)
제241호 (7.8)	글로벌 제조업 경기 동향과 시사점 (김세중) · 최근 발표된 선진국의 6월 제조업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 제조업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신흥국 제조업 경기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 등)
제241호 (7.8)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이아름) · 미국과 EU가 2013년 2월 13일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년 내 최종 타결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미국-EU FTA 체결로 교역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기준 및 규제의 표준화와 전 세계의 양자·다자간 자유무역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됨. (USTR, EUROPA 등)
제242호 (7.15)	세계보험산업 현황과 2013년 전망 (채원영) · Swiss Re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수입보험료는 4조 6,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1년 -1.1%에서 2.4% 증가로 전환하였으며 2013년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2.8%로 전망함. (Swiss Re)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42호 (7. 15)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최원) · IMF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4월 전망 3.3%에서 3.1%로 0.2%p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4년 전망도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함. · IMF는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세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흥국들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IMF, Financial Times 등)
제243호 (7. 22)	EU 카드수수료 상한선 도입 추진 (이정환) · 유럽연합(EU)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EC는 카드시장의 반독점 방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WSJ 등)
제243호 (7. 22)	2/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이소양) · 7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2/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1/4분기 7.7%에서 7.5%까지 둔화되었다고 발표함. · 중국경제 성장 둔화가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에 대한 교역정책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WSJ, FT 등)
제244호 (7. 29)	중국경제 정착률 우려와 시사점 (김세중) · IMF는 7월 17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경제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4%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Washington post 등)
제244호 (7. 29)	출구전략 시행 예고로 인한 신흥국의 환율 리스크 대응 (이아름)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야기된 신흥국의 보유외환 매각 및 금리 인상이 오히려 중기적으로 신흥국 성장을 위축시켜 세계 외환위기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시사됨. (WSJ, IMF 등)
제245호 (8. 5)	유로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최원) · 유럽연합(EU)은 7월 유로존(17개국) 경기체감지수(ESI)가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어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이러한 상승세가 유로존 경기의 회복신호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경기체감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다 경기부양책과 지속적인 저성장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함. (Financial Times, 한국경제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45호 (8. 5)	아베노믹스와 글로벌 위기 가능성 (김세중) · 미국 Wall Street Journal은 7월 29일 기사를 통해 일명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일본의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실패할 경우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최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일본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위협요인이 부각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등)
제246호 (8. 12)	영국의 텔레매틱스 자동차보험 판매 증가 (이정환) · 유럽에서는 텔레매틱스(telematics)를 활용한 자동차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에서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텔레매틱스 보험 판매가 증가한 것은 낮은 보험료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임. (ABI)
제246호 (8. 12)	성장하는 중국의 인터넷 보험 (이소양) · 중국 시장조사업체인 아이리서치(I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인터넷 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23.7% 증가한 39.6억 위안(약 7,200억 원)을 기록함. · 판매채널 및 경영범위의 제약으로 보험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소형보험사들은 중국 인터넷 보험시장 및 감독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중국보험보, 신량망 등)
제247호 (8. 19)	브라질 경제 불안과 시사점 (김세중) · 미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대표적인 신흥국 중 하나인 브라질에 대한 투자 자금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브라질 금융시장이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47호 (8. 19)	미국 연준의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과 시사점 (이아름) ·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및 이코노미스트들이 9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 출구전략이 마무리될 때까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치는 대외변수가 발생할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함. (WSJ, FT 등)
제248호 (8. 26)	인도 금융시장 불안과 시사점 (최원) · 인도 경제성장을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전체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모니터링은 계속되어야 함. (Financial Times, 연합뉴스 등)
제248호 (8. 26)	미국 정부부채 한도 확대 지연 (채원영) · 미국 의회가 9월 부채한도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며, 단기적인 절충안을 도출한 뒤 최종합의를 2014년이나 2015년 중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음. (WSJ 등)
제249호 (9. 2)	MBK파트너스,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계약 체결 (이정환) · MBK파트너스와 ING 그룹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8월 26일 체결함. · ING생명은 ING 그룹의 구조조정에 따라 2016년까지 매각 또는 그룹 분리가 예정되어 있으나 인수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사모펀드라는 점, 고용안정 문제, 기업 가치 저하 등은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WSJ, 연합뉴스 등)
제249호 (9. 2)	중국경제 과도한 부채 우려 지속 (이소양) · 8월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파이낸셜타임(FT)는 중국의 부채규모 급증 및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경제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8월 제조업 PMI가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 투자은행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등 중국의 경착륙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음. (WSJ, FT 등)
제250호 (9. 9)	일본 소비세 인상의 시사점 (채원영) · 일본 소비세 인상은 경제성장률과 엔화 환율,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리아 공습 등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WSJ 등)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250호 (9. 9)	신흥국 제조업 경기 동향의 특징 (이아름) · 9월 2일 HSBC가 발표한 신흥국의 8월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지난달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중국의 PMI는 상승하는 등 신흥국 가간 제조업 경기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 신흥국별, 그리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 제조업 경기회복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해 보임. (WSJ, Bloomberg 등)
제251호 (9. 16)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최원) · 최근 엔화약세, 물가상승, 3분기 연속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아베노믹스' 정책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WSJ, 연합뉴스 등)
제252호 (9.30)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지연과 영향 (이정환) · 미연준은 9월 FOMC회의에서 양적완화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양적완화 지속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양적완화 지속은 신흥국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지속, 원화강세 등 대외여건이 신흥국들과 차별화 된 것으로 인식되어 미국의 출구전략 지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Financial Times 등)
제252호 (9. 30)	선진국 경기회복과 금리 추세 (이아름) · 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하여 2013년 2/4분기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나타났으며 2013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회복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과 기업의 회사채 발행 확대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ECD, FT 등)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중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해외보험금융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통권 67호)

발행일	2013년 11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57, 3775-9059)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